

서양복식을 통해 디자인한 한복 만들기

제출자 : 이창하

지도교사 : 김수진

I. 서론	(1) 시옷프로젝트 대표 겸 디자이너 씨네, 디자이너 이슬
1. 연구 동기	(2) 리슬 대표 겸 디자이너 황이슬
2. 논문의 목적	(3) MAGPIE ROBIN 대표 겸 디자이너 최현영
3. 작품 방법 및 구성	5.) 제작할 디자인 선정
	6.) 패턴 및 샘플 작업
	(1) 전통한복 패턴 샘플링
	(2) 디자인 패턴 샘플링
	7.) 작품 제작
	(1) 바지
	(2) 저고리
	(3) 액세서리
II. 본론	
1. 한복이란?	3. 평가
1.) 한복의 정의	8.) 간디인 평가
2.) 한복의 기본 구조와 명칭	9.) 전문가 평가
(1) 여자	
(2) 남자	
3.) 한복 용어 정리	
4.) 한복의 변화	
(1) 여자 조선 전기	
(2) 여자 조선 후기	
(3) 남자 조선 전기	
(4) 남자 조선 후기	
2. 작품 제작 과정	I. 결론
1.) 참고자료 수집	4. 자기 평가
2.) 디자인 구상 및 스케치	5. 연구의 한계
(1) 마인드맵	6. 논문을 마치며
(2) 디자인 소재	
(3) 스케치 구체화	<♥고마워요♥>
3.) 다섯 개의 디자인	<참고 자료>
4.) 디자인 전문가 피드백	<고민한 흔적>
	<일지>

I. 서론

1. 연구 동기

어릴 때부터 한복에 매력을 느꼈다. 한복을 입는 명절을 항상 설레며 기다렸다. 그렇지만 내가 크면서 어릴 때 입던 한복은 작아져 못 입게 되었고, 1년에 두 번뿐인 명절에만 입을 한복을 사기엔 돈이 너무 아까워 사지 못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명절조차도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한복이 잊혀 가는 느낌을 받아 안타까웠다. 또한 우리의 전통 의복인 한복보다 양복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일상화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었고, 동서양 복식의 조화를 이룬 한복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졌다.

여전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보기 드물다. 그 이유는 한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한복은 일상생활에서 입지 않는 옷이라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논문의 목적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잊지 않고, 보다 더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양 복식을 통해 디자인한 한복을 만들어 직접 입고 다니며 한복은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한복에 대한 고전적인 이미지를 바꿔주고 싶다.

옷 한 벌이 만들어 지는 과정과, 한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적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3. 작품 방법 및 구성

내가 한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한복의 역사와 흐름, 한복 디자인의 특징, 등 한복에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공부해야 한다.

현재 독창적인 한복을 만들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찾아본다.

퓨전한복을 디자인하고 구상해서 스케치 해본다. 스케치한 퓨전한복 디자인을 구체화시켜 다섯개의 디자인으로 만든다.

만들어진 다섯개의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1개의 디자인을 고른다.

전통한복 패턴을 떠서 1차 샘플 제작을 해본 후, 내 디자인에 맞게 도식화를 하고 그에 맞게 패턴을 변경해서 작품 제작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샘플을 제작한다.

세트로 구성할 악세사리를 구상하고 디자인하여 제작한다.

완성한 작품은 간디인 평가, 전문가 평가를 받고 결론을 내린다.

III. 결론

1. 한복이란?

1.) 한복의 정의¹⁾

한복이란, 한민족(韓民族)의 고유한 의복이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민족 고유의 의복으로서 조선옷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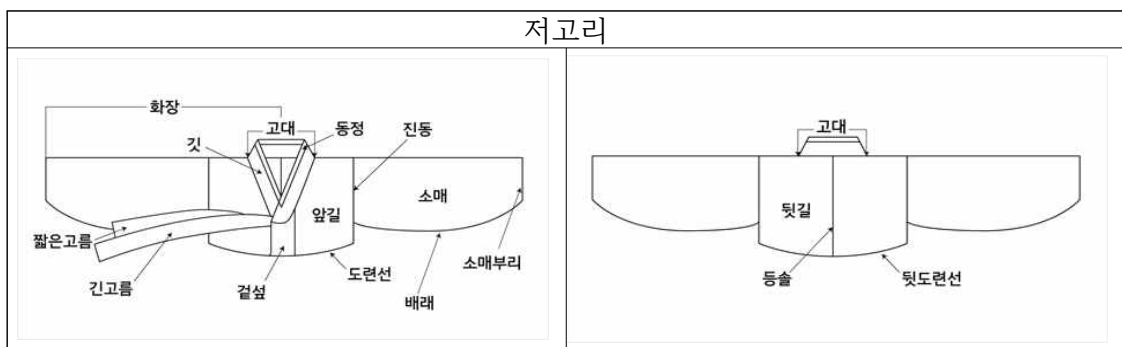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우며, 특히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울려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다.

예복과 평상복이 나뉘어 있으며 남녀별 성인과 어린이용, 계절별로 나뉜다.

2.) 한복의 기본 구조와 명칭²⁾

(1) 여자

여자 한복에는 치마, 저고리가 있고, 저고리는 반회장저고리³⁾와 삼회장저고리⁴⁾, 색동저고리⁵⁾가 있다.



(2) 남자

현대 남자 한복에는 바지, 저고리, 배자⁶⁾, 조끼, 두루마기⁷⁾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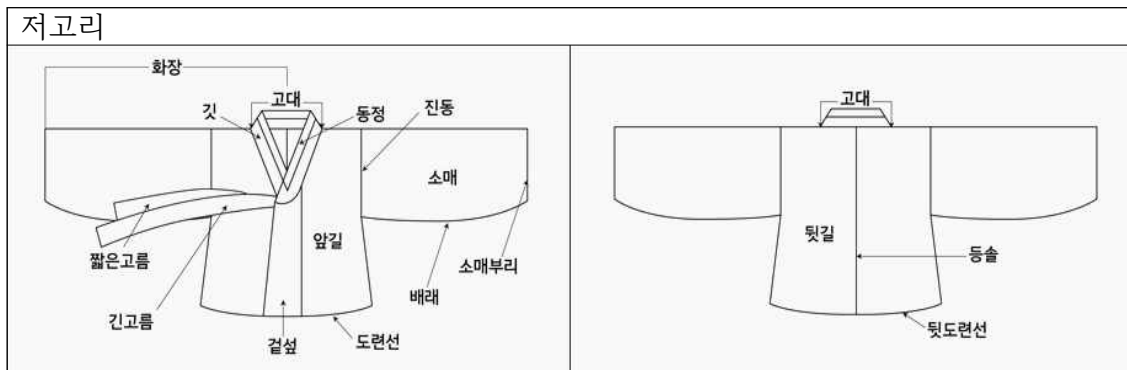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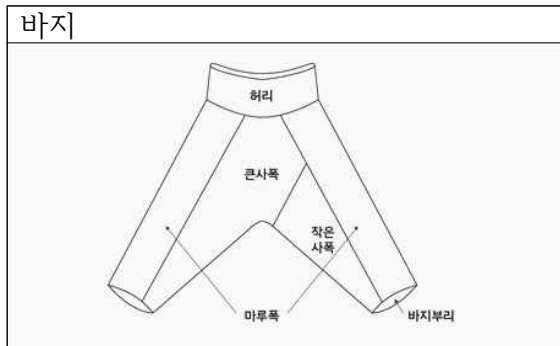
1) 한복 [韓服] 두산백과

2) 한복진흥센터 남녀의 기본 한복 (<http://www.hanbokcenter.kr/user/nd79287.do>)

3) 깃, 고름, 끝동에 회장을 댄 저고리를 말한다.

4) 깃, 고름, 끝동, 결마기에 회장을 댄 저고리를 말한다.

5) 색동 소매가 달린 저고리를 말한다.



3.) 한복 용어 정리⁸⁾

결마기: 저고리의 겨드랑이 부분을 말한다.

고대: 양 어깨솔기 사이인 옷깃의 뒷부분을 말한다.

고름: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앞길을 여미기 위한 가슴 부분에 2개의 끈을 말한다.

길: 상의의 넓은 큰 폭을 말한다.

깃: 목 부분을 감싸는 구성요소이다.

끝동: 저고리의 소매 끝에 다른 색의 옷감을 덧댄 것을 말한다.

대님: 남자의 한복 바짓부리(발목부분)를 묶는 끈을 말한다.

배래: 저고리의 소매 끝에서 진동까지의 곡선을 이룬 아랫부분을 말한다.

섵: 저고리나 두루마기 등의 상의의 앞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부분에 덧대는 천이다.

수늑: 버선을 꿰맨 솔기부분을 말한다.

회장: 여자 저고리에서 깃, 끝동, 결마기, 고름 등에 저고리와 다른 색의 옷감을 덧댄 것을 말한다.

4.) 한복의 변화⁹⁾


6) 저고리 위에 입는 소매 없는 옷으로 좌우 같은 모양의 깃이 달려 있고 고름이나 단추로 여며 입는다.

7) 조끼 위에 입는 옷으로, 깃과 고름이 없고, 단추로 여며 입는 옷이다. 주로 방한용으로 입고, 개화기 때부터 지금까지 조끼와 함께 입고 있다.

8) 한복진흥센터 남녀의 기본 한복 (<http://www.hanbokcenter.kr/user/nd79287.do>)

9) 글림자. (2018). 조선시대 우리옷 한복 이야기. 혜지원

(1) 여자 조선 전기

 <p data-bbox="268 981 699 1041"><그림 5> 그라폴리오 여성 한복 시대별 일러스트 (2) 17세기</p>	<p data-bbox="735 477 1353 667">초기의 여자 한복은 전체적으로 헐렁하고 넉넉하였으나, 몽골식 복식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고려시대의 전통복이 그대로 이어졌다.</p> <p data-bbox="735 689 1353 880">여성이 화려하게 올린 머리 모양을 한자로 계(髻)라고 표현하는데, 이전 시대 까지 사용해 온 다양한 계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p>
--	--

(2) 여자 조선 후기

 <p data-bbox="268 1805 699 1865"><그림 6> 그라폴리오 여성한복 시대별 일러스트(4)</p>	<p data-bbox="735 1361 1353 1664">저고리는 점차 짧아지고 소매도 좁아지면서 상체와 팔뚝에 꼭 맞아 몸매를 드러내게 되고, 치마는 앞과 뒤의 길이가 같아지고 길이도 짧아졌지만 여전히 폭은 풍성하여 전체적으로 상박하후(上薄下厚)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다.</p>
--	--

(3) 남자 조선 전기

	<p data-bbox="758 1944 1353 1977">초기의 한복은 전체적으로 품이 넉넉하여,</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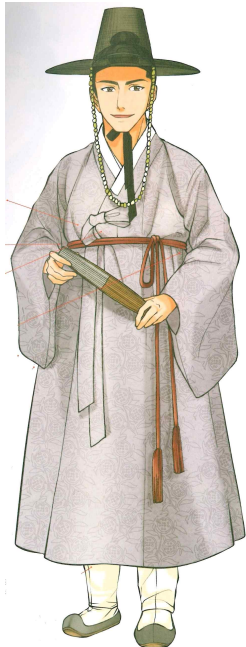


<그림 7>
글림자. 조선시대 우리옷
한복 이야기.

“성년이 되며 지은 옷을 수의로도 사용하였다”고 할 정도로 체형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백저포에서 이어져 온 반비(짧은 소매) 겹옷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옷의 구조나 형태의 있어 이전 시기의 복색과 원나라(몽골)식 복색이 남아있다.

(4) 남자 조선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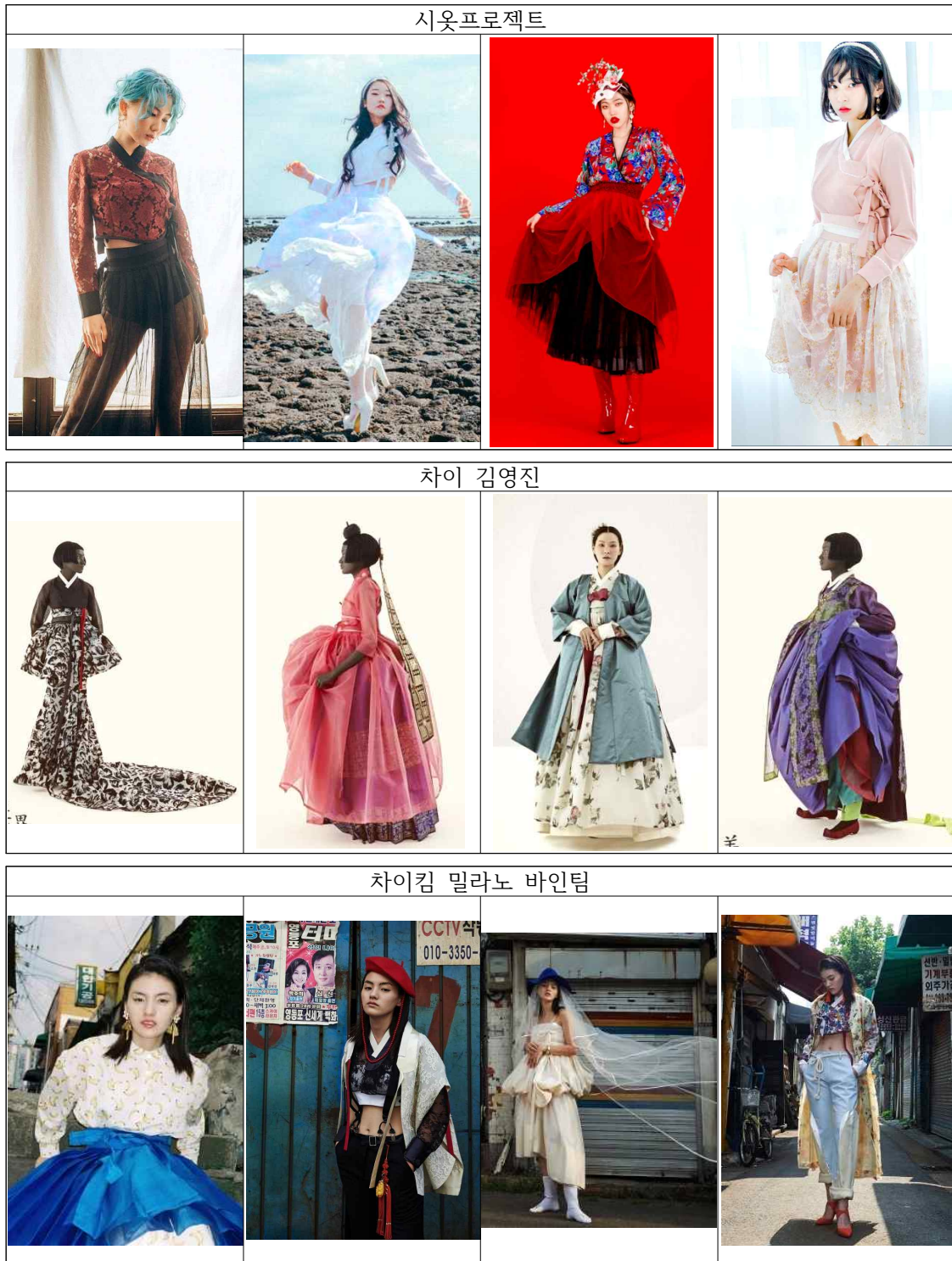


<그림 8>
글림자. 조선시대
우리옷 한복 이야기.

갓의 형태가 초고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직령의 포가 발달하게 되면서 한국 특유의 복색이 자리잡게 된다. 전체적으로 헐렁했던 옷이 상체에 맞게 좁아진 반면, 소맷 자락이나 무가 포함된 옷자락은 반대로 풍성해지기도 한다.

2. 작품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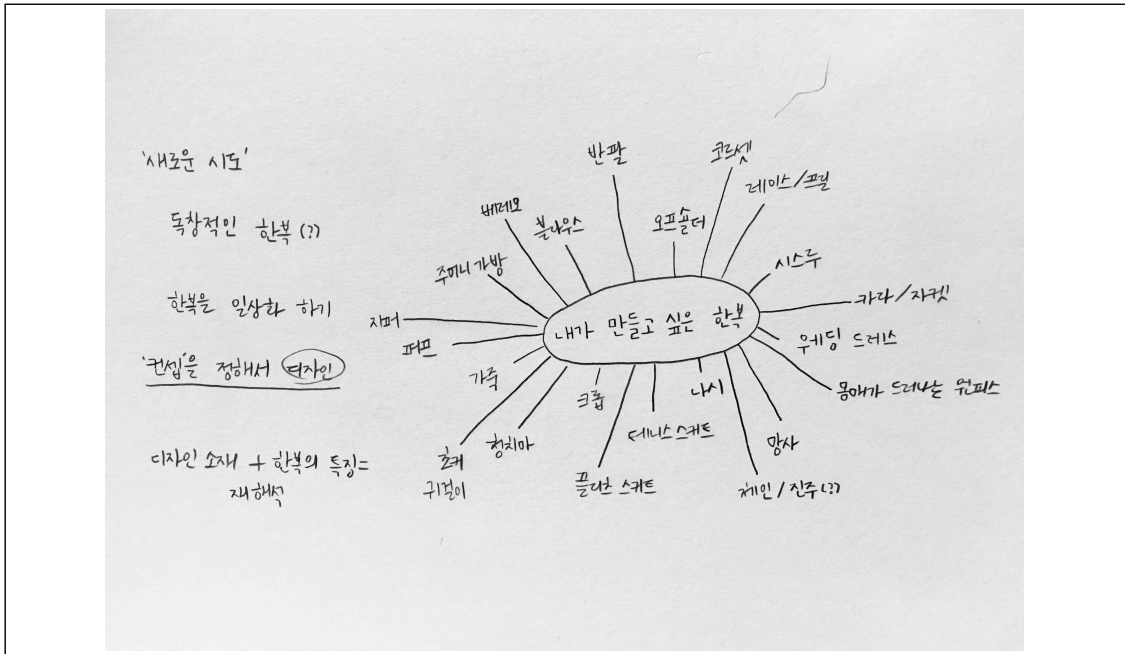
1.) 참고자료 수집



2.) 디자인 구상 및 스케치

(1) 마인드맵

디자인을 하기위해 “내가 만들고 싶은 한복”을 주제로 여러 차례 마인드맵을 해서 광범위한 영역을 어느 정도 좁혔다.



(2) 디자인 소재

마인드맵 내용을 “작품 디자인 소재”로 세분화 하여 정리했다.

작품 디자인 소재

상의	하의	액세서리	포인트
오프숄더		베레모	시스루
퍼프 소매	청치마	헤어밴드	언발란스
반팔	테니스 스커트	방거지	프릴, 레이스
블라우스	플리츠 스커트	귀걸이	레이어드
카라	와이드 팬츠	초커	리본
나시	치마 바지	코르셋	자수
크롭	겔치마	가방, 주머니	가죽
뷔스티에		망사	패턴
		체인	지퍼

① 디자인 소재 용어 정리¹⁰⁾

오프숄더: 목에서 어깨까지 노출시킨 네크라인. 또, 그러한 디자인.

퍼프 소매: 어깨 끝이나 소매 끝에 주름을 넣어 약간 부풀게 한 소매.

블라우스: 여자나 아이들이 입는 셔츠 모양의 낙낙한 윗옷.

카라: 셔츠 등에 사용하는 목 깃.

크롭: 아래선이 잘린 듯 약간 짧은 형태의 티셔츠를 말한다.

뷔스티에: 팔소매와 어깨끈이 없는 여성용 옷

테니스 스커트: 테니스복에서 유래된 여성이 주로 입는 서양식 치마.

플리츠 스커트: 허리춤에서 세로로 주름을 많이 잡은 치마

와이드 팬츠: 폭이 넓은 팬츠의 총칭

베레모 : 챙이 없는 부드러운 납작 모자

병거지: 부드러운 천의 테가 있는 모자

초커: 목에 딱 끼는 목걸이 따위를 이르는 말.

코르셋: 배와 허리의 맵시를 내기 위하여 배에서 엉덩이에 걸쳐 받쳐 입는 여자의 속옷.

언밸런스: unbalance

프릴, 레이스: 주름을 잡아 물결 모양으로 만든 가장자리 장식.

레이어드: laye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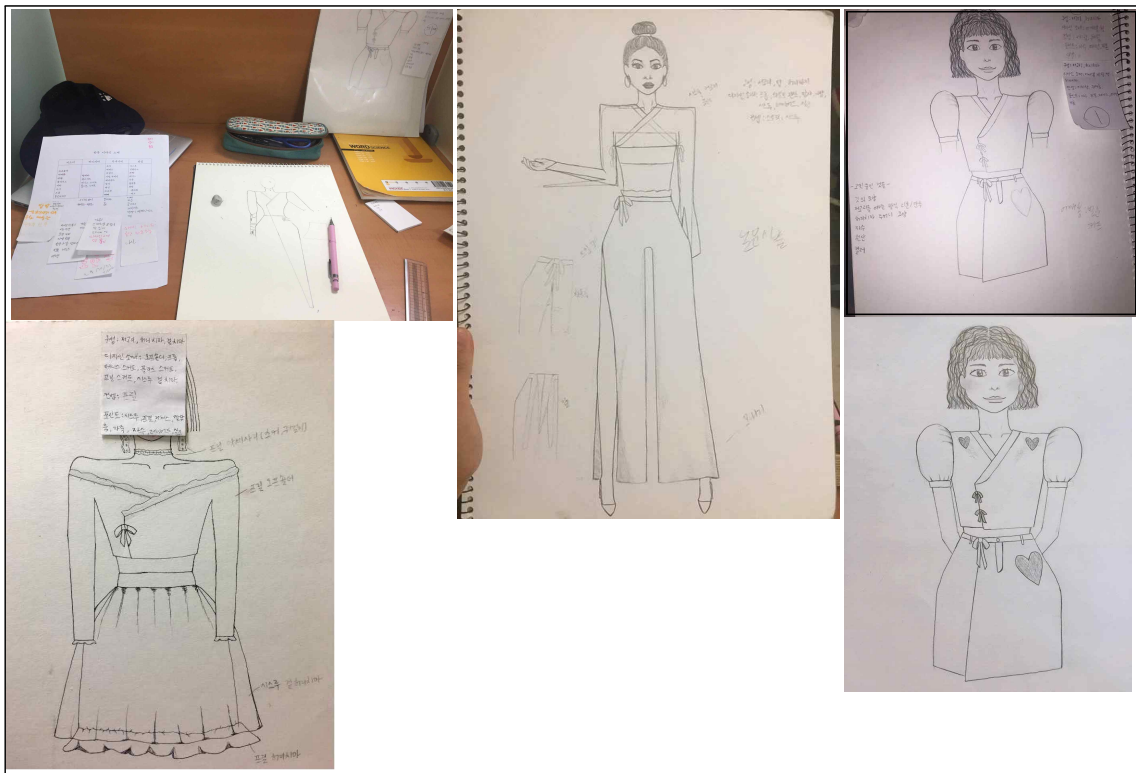
패턴: 무늬

10) 네이버 사전

(3) 스케치 구체화

“작품 디자인 소재”를 활용해서 간단한 스케치를 여러개 해보고, 스케치들을 하나의 디자인 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나의 디자인으로 스케치를 만들면 “SketchBook“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정 및 채색 작업을 한 후,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 했다.



3.) 다섯 개의 디자인

완성된 다섯 개의 디자인을 구상하게 된 배경과 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넣어 문서화 시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사용한 한복의 특징과 서양 복식 디자인 요소 등을 자세하게 알고,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최상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 조사와 고민이 필요 했다.

나의 다섯 가지 디자인은 서양 복식 디자인을 통해 한복을 디자인하는 것. 즉, 동 서양의 복식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한복에서 영감을 받거나 서양 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살리고 싶은 한복의 특징을 바탕으로 서양 복식 디자인과 매치시켜 디자인했다.

최대한 다양한 컨셉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다섯 개의 디자인 컨셉을 전부 다르게 구상 했다.

1.

컨셉: 귀여움

구성: 퍼프 저고리, 데님 허리치마

디자인 포인트: 퍼프 소매, 데님 원단, 자수, 리본

컬러: 퍼프 저고리- 아이보리

데님 허리치마- 연청



디자인 설명:

18세기 유럽 로코코시대의 퍼프 소매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저고리의 길이, 깃, 섹의 형태를 바탕으로 퍼프 소매를 매치시켰고, 조선 중기 치마 디자인의 허리치마 형태(허리에서 묶어매는)를 데님 스커트와 매치시키고 싶어 많은 고민 끝에 데님 허리치마를 디자인해서 세트로 구성했다.

키치하고 귀여운 컨셉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자수와 두 개의 리본으로 컨셉의 느낌을 더 했다.

2.

컨셉: 섹시, 스트릿¹¹⁾

구성: 시스루 저고리, 트임 바지

디자인 포인트: 크롭, 시스루, 트임, 패턴

컬러: 블랙



디자인 설명:

올해 유행했던 와이드 팬츠와 한복 바지를 매치시키고 싶어 디자인 했다.

한복바지의 넓은 폭과, 끈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와이드 팬츠의 핏¹²⁾과 매치시켜 디자인 했고, 섹시하고 스트릿한 컨셉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다리 옆면에 트임을 주었다.

트임 바지는 두가지 방법으로 스타일링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진처럼 와이드 팬츠 핏으로 스타일링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사진처럼 한복 바지의 고정 방식대로 발목을 묶어 스타일링 할 수도 있다.

시스루 저고리는 예술인 으로서 일반인의 복식 규제 보다 훨씬 화려한 옷차림을 허용 받았던 기생¹³⁾복에서 영감을 받아 세트로 구성했다.

기생복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슴까지 올라오는 짧은 기장에 시스루 원단으로 디자인 했고, 기본적으로 슬림한 핏에 트임 바지처럼 소매에도 트임 포인트를 주어 파고다 소매(팔꿈치부터 손목에 이르기 까지 너울거리는 소매)로 디자인 했다.

깃을 평범하게 디자인 하고 싶지 않아서 위 사진처럼 양쪽 깃을 저고리의 끝자락 까지 이어 옆에서 묶을 수 있게끔 디자인 했다.

컨셉에 맞게 어떤 컬러로 디자인 할지 많은 고민 끝에 올블랙으로 디자인을 마쳤다.

11) street fashion: 거리의 유행 현상이 패션이 되는 경우.

12) fit: (모양크기가 어떤 사람사물에) 맞다.

13) 전통사회에서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춤 및 풍류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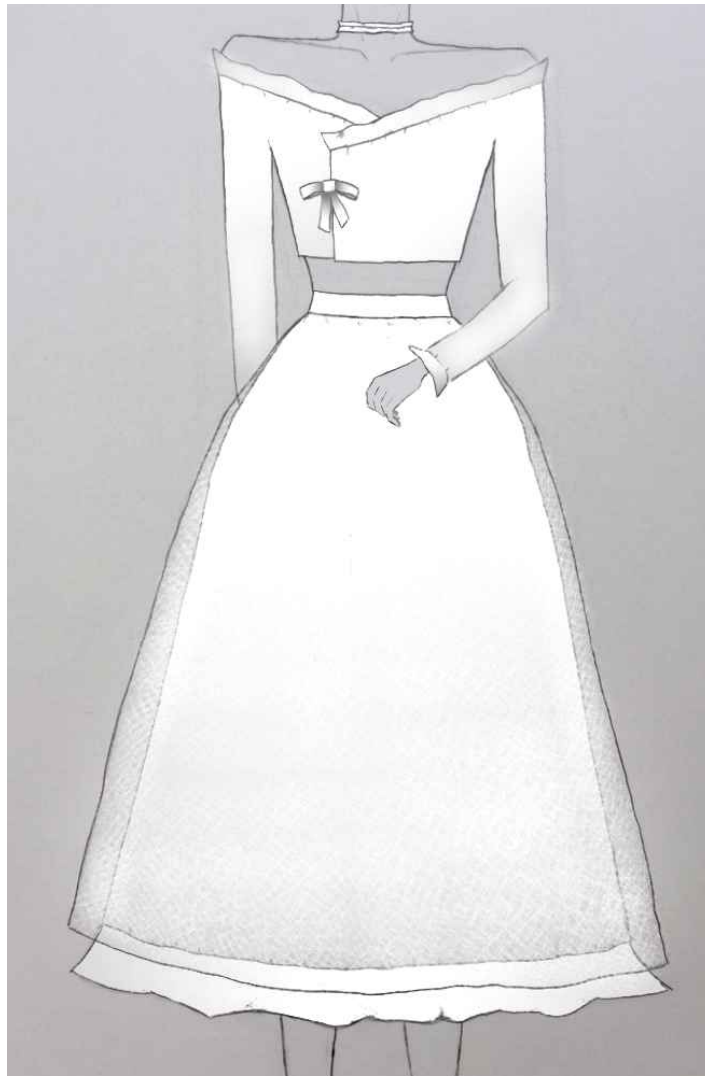
3.

컨셉: 웨딩, 청순

구성: 오프숄더 프릴 저고리, 프릴 허리치마, 시스루 겹치마

디자인 포인트: 프릴, 시스루

컬러: 화이트



디자인 설명:

오프숄더와 한복 저고리를 매치시키고 싶어 디자인했다.

조선 후기 저고리 디자인의 길이와 섹을 바탕으로 깃을 오프숄더 형태로 변형 시켜 매치했고, 깃의 등 부분은 일자로 구성해 타이트한 핏으로 디자인 했다.

저고리에 프릴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깃과 소매 끝자락에 프릴을 달아 디자인 했다.

허리치마도 저고리 포인트와 맞춰서 치마 끝자락에 프릴을 달아 디자인했고, 너무 밋밋하진 않을까 우려가 되어 시스루 소재의 겹치마를 겹 입어 뒷면에서 묶을 수 있게 구성했다.

이 디자인이 예전부터 만들어보고 싶었던 한복 웨딩드레스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컬러를 화이트로 맞춰 청순한 웨딩드레스 컨셉으로 디자인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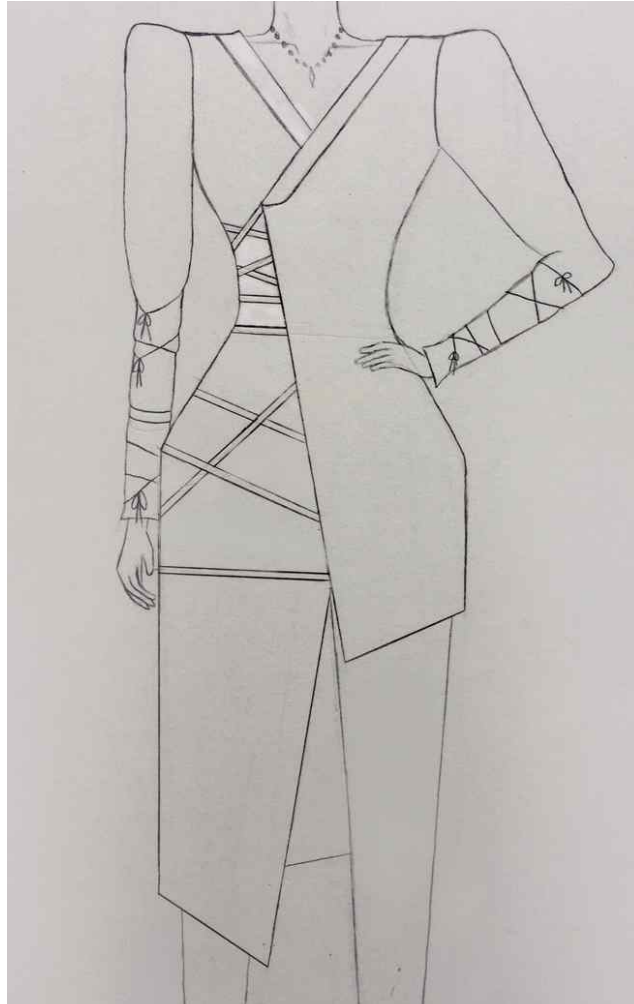
4.

컨셉: 모던¹⁴⁾, 레트로¹⁵⁾

구성: 언발란스 끈 한복 원피스

디자인 포인트: 끈, 언발란스

컬러: 미정 (벨벳¹⁶⁾이나 실크¹⁷⁾같은 원단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싶다.)



디자인 설명:

조선 전기 남자 한복 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하게 되었다.

팔꿈치 위로는 넉넉하고 팔꿈치 아래로는 비교적 폭이 좁은 소매, 허리끈으로 허리를 조이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레그오브머튼소매(어깨에서 부풀고 차차 좁아져 소매부리에서는 꼭 맞게되는 소매)와 매치했고, 끈으로 허리, 골반, 소매를 감싸 뒷면에서 고정할 수 있게 포인트를 주어 어깨부분을 제외한 전체적인 핏을 타이트하게 변형시켰다.

끝자락을 언발란스 하게 마무리 해서 포인트를 주었다.

14) modern

15) retro: 현재 유행하는 서양의 70년대 복고풍

16)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짠 비단.

17) 명주실 또는 명주실로 짠 피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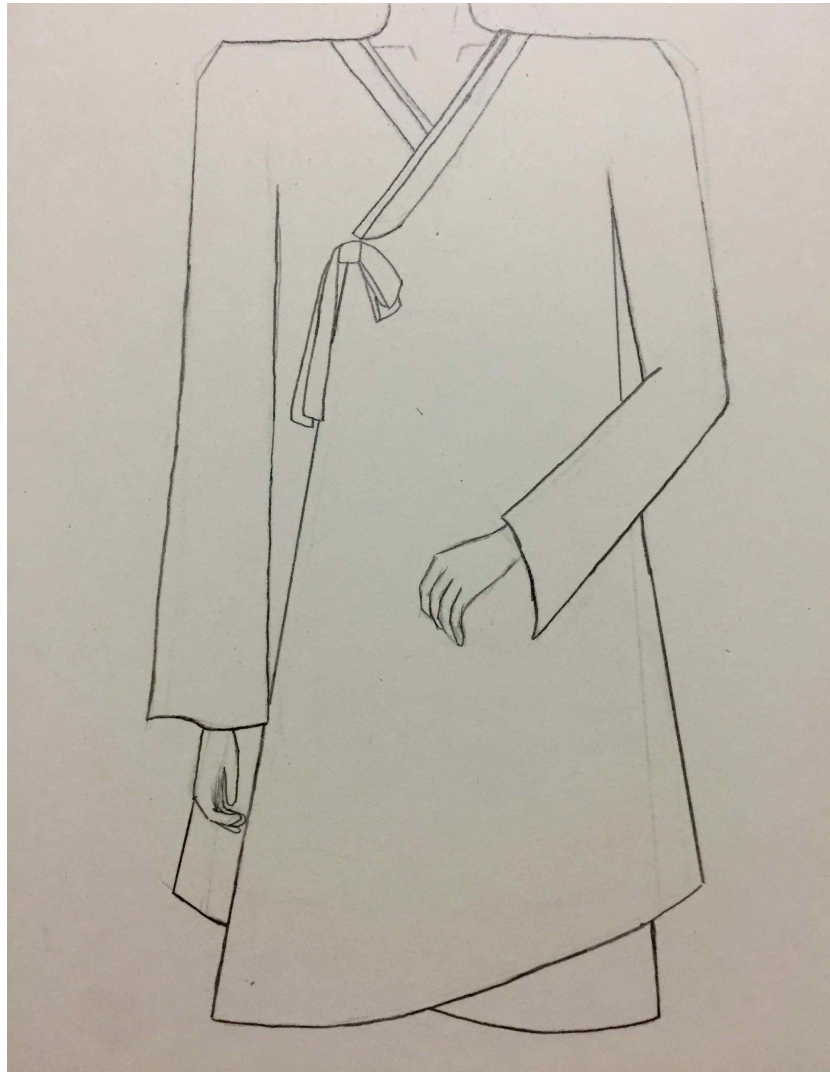
5.

컨셉: 캐주얼¹⁸⁾, 빈티지¹⁹⁾

구성: 저고리 원피스

디자인 포인트: 빈티지 패턴 원단, 자수 (원단을 확정하고 어울리는 자수를 넣을 예정)

컬러: 미정 (원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디자인 설명:

조선전기 저고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게 되었다.

조선전기 저고리의 거의 모든 형태를 살리되, 밑단을 길게 늘어트려 원피스로 변형 했다.

여태까지 디자인했던 도안들을 모두 몸매를 드러내어 어찌면 불편할 수 있는 디자인 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빈티지 원피스 컨셉으로 디자인 했다.

트렌디한 빈티지 패턴 원단을 사용해서 그에 어울리는 자수로 포인트를 줄 예정이다.

18) 가벼운 또는 편안하다는 의미로 평상복을 의미.

19) 옛것으로 품위를 살린 데가 있다.

4.) 디자인 전문가 피드백

전문가에게 다섯 개의 디자인을 평가 받고 피드백 받은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의 디자인을 선정해서 제작하기 위해 네명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1) 시옷프로젝트 대표 겸 디자이너 씨네, 디자이너 이슬

sns를 통해 인터뷰를 섭외했고, 8월 20일 시옷프로젝트의 작업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A. 디자인 스타일은 요즘 트렌드²⁰⁾한 것들을 한복으로 잘 변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들도 당연히 재단을하고 다트²¹⁾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이런 옷이 나오는 건데, 이정도의 그림만 보고는 옷을 만드는 것, 옷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Q. 1번 부터 5번 디자인 까지 솔직한 평가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A. 1번 디자인: 생활에서 입을 수 있도록 어느정도 일상복 같은 느낌을 유지하면서 깃만 달아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 옷을 실제로 만들었을 때 한복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복의 요소를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수를 동양적인 느낌으로 퀄리티 있게 잘 만들고, 리본의 크기를 키우던지 매듭을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디자인: 한복바지 보다는 트레이닝 바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폭 바지의 느낌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3번 디자인: 지금은 너무 단순하고 디테일이 많이 부족해서 청순도 웨딩도 아니에요.

웨딩 드레스에 주로 사용되는 레이스 원단, 자수 원단을 사용하던지, 프릴을 더 풍성하게 넣어서 튀지 않는 디테일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오프숄더 저고리는 자칫하다가 기모노²²⁾처럼 보일 수 있어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동정을 달던지, 한복의 요소를 추가해야 할

20) trend: 시대의 추세, 조류, 유행을 의미한다.

21) dart: 평면적인 옷감을 입체적인 체형에 맞추기 위하여 허리나 어깨 따위의 일정한 부분을 긴 삼각형으로 주름을 잡아 꿰매는 일

22) 일본의 전통 복장.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오프숄더의 형태를 한복으로 만드는거예요.

나도 오프숄더 저고리를 도전했지만 이 그림처럼 이상적으로 절대 만들지 못해요.

저고리는 앞이 이어져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무줄을 사용 할 수도 없고, 흘러 내리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까다로워요.

끈으로 묶어서 어깨에 걸치는건 너무 아슬아슬하고, 끈으로 꽉 잡아주면 가슴만 부각 되기 때문에 오프숄더를 포기하거나 어깨에 끈을 다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4. 엄청 섹시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만들면 끈과 핏이 이렇게 이상적인 각도로 예쁘게 고정되지 않아요.

이런 핏을 원한다면 원피스로 만들고 뒤에 지퍼를 달아 입는 방법 밖에 없어요.

스판²³⁾끼가 많은 천을 사용하면 허리에서 골반 라인은 강조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팔과 밑단도 몸에 달라붙기 때문에 끈으로만 포인트를 줄 수 있죠.

이 그림대로 옷이 나오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작을 한다면 수정을 많이 해야해요.

5. 설명 없이 그림만 보고는 두루막 처럼 보여요.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좀더 구체화 해서 만들면 좋겠어요.

Q. 다섯가지 디자인 중에 제작했으면 하는 두가지 디자인을 말씀해 주세요.

A. 씨네님: 디자인만 보고 잘 만든 가정하에 고르면 2, 4번째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2, 4번 둘 다 잘 표현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슬님: 2, 3번 디자인이 그나마 가장 쉽고 괜찮을 것 같아요

Q. 디자인을 제작으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막막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 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A. 패턴²⁴⁾도 떠본적 없다면 지금 그려온 옷은 한 개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패턴을 배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뿐더러, 입체 패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게 아니니까요,

1부터 만드는 것, 처음부터 치수를 재서 패턴을 뜨고 옷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당장은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23) 신축성이 있는 소재

24)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

그렇지만 나쁜건 아니죠,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월까지 작품을 만들어야하면 리폼²⁵⁾ 정도로 밖에 못할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옷을 찾아서 수정해야하는 부분들을 수정하고 한복의 요소를 추가하면 되니까, 그 정도만 잘 해냈어도 잘하고 기특한 것 같아요.

(2) 리슬 대표 겸 디자이너 황이슬

면대면 인터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8월 21일 5가지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메일로 전달받았다.

1, 2번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구성도 좋고 테마와 어울어집니다.

컬러와 소재 선정 역시 주제에 적합하게 잘 선정되었습니다.

3번 디자인은 저고리를 오프숄더로 제작하게 되면 한국복식의 형태와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치마에 디자인을 좀더 한국적으로 선택한다든지, 소재를 한국전통 소재를 믹스해서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4번 디자인은 끈을 이용해서 옆구리와 골반 등을 감싼다고 하였는데, 착장방식을 간소화 시켜야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좋지만 입을 때 너무 불편할 수 있고,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끈의 대부분은 상침을 통해 모양만 내고, 실제 여밈은 1줄의 끈으로만 해서 시각적 효과만 내시기 바랍니다.

5번 디자인은 밑단의 모양이 패턴을 잘못 만들어서 옷감이 밀려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도된 디자인인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좀 더 라인을 모양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MAGPIE ROBIN 대표 겸 디자이너 최현영

3명의 전문가와, 주변 사람들에게 평이 가장 좋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2번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던 중, 원단 업계 사장님이신 18학번 두희의 아버지 형성곤님의 소개로 8월 24일 최현영 전문가님을 만나볼 수

25) reform: 옷을 개선해 바꾸다.

있었다.

디자인을 제작으로 옮기는 실무적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Q. 디자이너는 옷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A. 옷을 완성하기까지의 첫번째 과정은, 내가 만들고 싶은 옷과 가장 비슷한 느낌의 이미 만들어져있는 옷을 찾아서 이미지를 스크랩 해두는거예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어느정도 구체화를 시키면 도식화²⁶⁾를 해요.

도식화만 보고도 옷을 만들 수 있게끔 한 부분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 주고 설명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패턴을 뜨고 샘플 작업을 하는건데, 보통 디자이너가 직접 하지는 않고 패턴사²⁷⁾에게 의뢰를 하죠.

완성된 샘플을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샘플을 만들어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제작을 해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했지만 이 과정이 초보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을거예요.

Q. 제가 직접 기간안에 패턴을 뜨고 제작하는건 어려울까요?

A. 패턴에 대한 공부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옷의 구조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직접 패턴을 뜰수야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본인이 이만큼 디자인 했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테니까 도식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식화 자료만 가지고 패턴사한테 가서 샘플을 만들어오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것도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Q. 저한테 한복 패턴을 뜨고 제작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둔 책이 있는데, 그 책을보고 전통한복 패턴을 떠서 샘플을 만들어 보면 직접 패턴을 변경하고 샘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A. 2번 디자인은 미숙하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는것도

26) 사물의 구조, 관계, 변화 상태 따위를 그림이나 양식으로 만들.

27) 디자이너의 스케치나 작업지시서에 따라 의류의 패턴 즉, 기본 모형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직업.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도식화만 보고도 옷을 만들 수 있을만큼 자세하게 2번 디자인을 도식화 해야 직접 패턴을 변경 할 수 있어요.

바지는 디자인과 비슷한 옷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옷을 자꾸 보고 구조적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게 도움이 많이 될거예요.

그런데 저고리는 아마 비슷한 옷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머릿속에 있는 구조를 최대한 도식화 해내야 해요.

직접 하다보면 힘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거예요.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도전해 보는 수밖에 없죠.

5.) 제작할 디자인 선정

앞서 디자인 전문가 피드백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4명의 전문가와 주변 사람들에게 2번 디자인은 평가가 가장 좋았다.

나 또한 2번 디자인을 구상하고 스케치 하는 과정이 비교적 다른 디자인들 보다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뿐더러 애정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디자인을 실현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2번 디자인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6.) 패턴 및 샘플 작업

(1) 전통한복 패턴 샘플링²⁸⁾

패턴을 뜨는 것부터 옷 한 벌을 완성하기 까지의 과정을 한번도 경험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내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바로 내 디자인을 샘플을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한복 짓는 시간²⁹⁾”의 양식과 방법에 맞게 기본적인 전통한복 패턴으로 1차 샘플링을 했다.

샘플 만드는 상세한 과정 사진을 모두 찍지 못해서 내 과정과 일치한 “한복 짓는 시간”의 자료를 사용했으니 나의 과정 사진은 작업 사진을 참고한다.

① 바지

• 필요 치수

한복은 평면 구성이며, 본뜨기에 필요한 기본 치수를 정확히 재고 이 치수를 기본으로 다른 치수를 산출하거나 표준 치수를 참고하여 만들면 편안하게 잘 맞는다.

바지 본뜨기의 필요한 치수는 바지 길이, 엉덩이 둘레이다.

- 바지 길이: 옆 허리선에서 발바닥까지 수직으로 잴다.
- 엉덩이 둘레: 엉덩이의 가장 튀어나온 둘레를 수평으로 잴다.

• 참고 치수(단위: cm)

부위 \ 키	165	170	175	180
엉덩이 둘레	90	95	100	105
바지 길이	105	110	115	120
허리 너비	15	15	16	16
부리(H/4+3)	25.5	26.5	28	29.5
허리띠(너비X길이)	6X150			
대님(너비X길이)	3X85			

성인의 체형은 변수가 많으므로 착용자의 엉덩이 둘레와 바지 길이를 계측해서 제도하는 것이 정확하다. 성인 바지에는 반드시 허리띠와 대님을 만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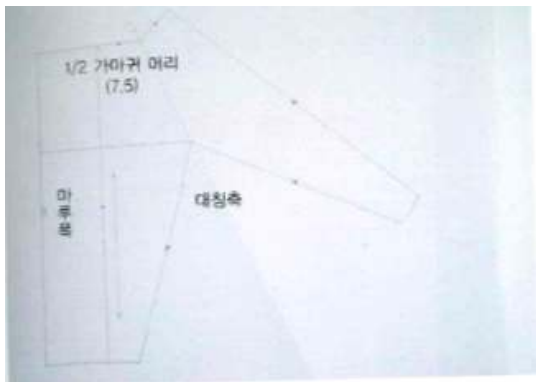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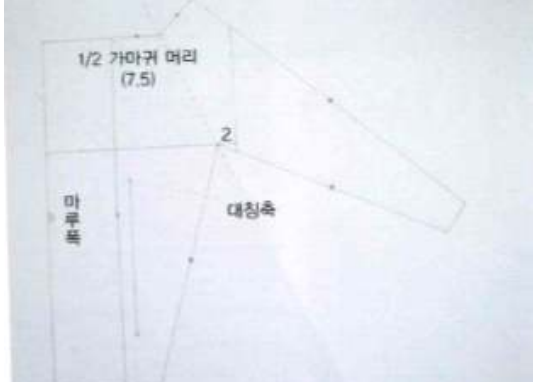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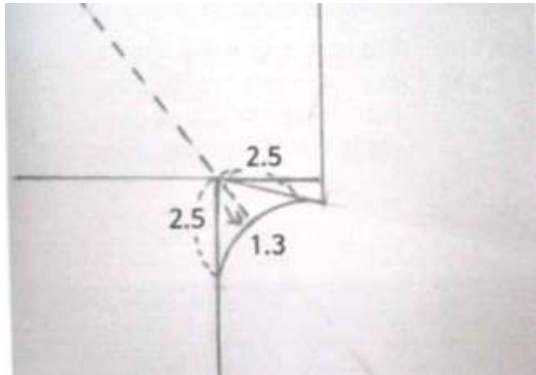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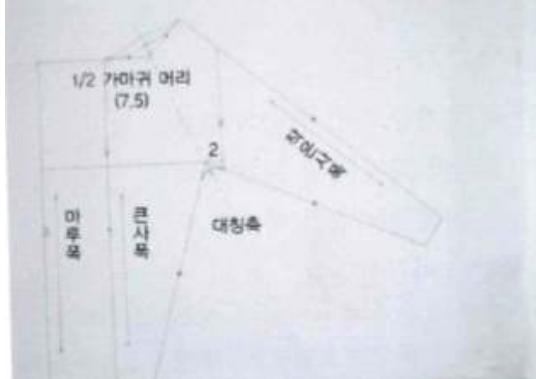
28) 이정수. (2016). 한복 짓는 시간. 이담 북스

29) 이정수. (2016). 한복 짓는 시간. 이담 북스

• 패턴 뜨기

계산한 내 치수를 아래의 방법대로 패턴을 뜬다.

<p>1. 바지 길이, 허리, 바짓부리의 기본선을 그리고 사진과 같이 등분선을 긋는다.</p>	<p>2. 마루폭은 골선(바느질 선이 없음)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표시하고 대칭축이 되는 점선을 그린다.</p>
<p>3. 대칭축을 기준으로 제도지를 뒤로 접는다.</p>	<p>4. 1/2 가마귀 머리선을 접어준다.</p>
<p>5. 배래선을 접어준다.</p>	<p>6. 제도지를 펴면 반대쪽에 접힌 선이 나온다.</p>

	
<p>7. 반대쪽에 같은 수치의 2/1 가마귀 머리와 바지 길이 재래선을 그린다.</p>	<p>8. 대칭축이 되는 선에서 오른쪽으로 2cm 나아가 수직선을 그어 큰사폭과 작은사폭의 슬기선을 긋는다.</p>
	
<p>9. 대칭축에서 1.3cm 내린 점과 양쪽의 배래에서 2.5cm 내린 점을 곡선으로 그린다.</p>	<p>10. 큰사폭과 작은사폭 바지의 허리선을 긋고 이등분 하여 완성 곡선을 그린다.</p>
	
<p>11. 마루폭, 큰사폭, 작은사폭의 식서를 길게 표시하고 가위 표시선을 잘라준다. 식서 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자를 대고 세로선과 평행하고 길게 긋는다.</p>	




• 마름질

옷감을 자르는 것을 마름질 이라고 한다. 마름질을 할 때에는 옷감 폭의 가장자리(식서)와 평행 하게 옷본을 배치하고 큰 조각부터 마름질한다.

바지는 마루폭이 골선이 되어 가장 큰 조각이 되므로 마루폭, 큰사폭, 작은사폭 순으로 마름질한다.

바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겹감 마루폭 두장, 큰사폭 두장, 작은 사폭 두장, 허리 한 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1차 샘플링에서는 모든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허리를 마름질 하지 않았다.

		
<p>1. 옷감의 접힌 부분을 잘 다리고 겹과 안을 구분하여 겹감의 길이 마주보도록 접어놓고 마루폭 본을 올려놓는다. 이때 옷감의 식서와 본의 식서 표시가 평행하도록 배치한다.</p>	<p>2. 기화펜을 사용하여 시접 2cm를 표시한다.</p>	<p>3. 재단가위를 사용하여 시접 표시선을 자른다. 같은 방식으로 마루폭을 한 장 더 마름질 한다.</p>

		
<p>4. 마루폭의 골선 위아래 부분에 작은 꼭지각을 주어 중심 표시를 한다.</p>	<p>5. 겹감이 마주보도록 접어 놓은 후 큰사폭 본을 놓고 작은사폭 본은 뒤집어놓아야 올 방향이 바르게 된다. 시접은 모두 2cm를 두고 마름질한다.</p>	<p>6. 두 장의 큰사폭을 잘라준다.</p>
		
<p>7. 허리는 직선이므로 재도를 하지 않고 {(마루폭 너비 + 1/2 가마귀 머리 + 마루폭 너비) × 2(뒷부분)} + 양쪽 시접 3cm(각 1.5cm)를 두고 마름질 한다. 허리 너비는 남아바지 참고 치수에서 연령에 맞는 너비에 양쪽 시접 3cm(각 1.5cm)를 둔다. 3세 남아 같은 경우에는 길이 73cm, 허리 너비 14cm로 마름질한다. 이때 허리길이 가 식서 방향이 되도록 한다.</p>	<p>8. 마름질을 완성한 모습이다.</p>	

• 완성선 그리기

옷감의 안쪽에 완성선을 그린다.

<p>1. 마루쪽의 본에 표시된 골선을 꼭지각 중심에 맞추어 완성선을 그리고 반대쪽은 본을 뒤집어서 그린다.</p>	<p>2. 큰사폭은 마름질할 때 두 장을 함께 하였으므로 핀으로 두 장을 고정된 상태에서 앞장은 본을 그대로 대고 완성선을 그린다.</p>	<p>3. 두장의 큰사폭은 본을 뒤집어서 완성선을 그린다.</p>
<p>4. 겉감의 안쪽에 본을 대고 그리게 되므로 사진과 같이 대칭으로 나와야 한다.</p>	<p>5. 작은사폭도 마름질할 때 두 장을 함께 하였으므로 핀으로 두 장을 고정된 상태에서 앞장은 본을 그대로 대고 완성선을 그린다.</p>	<p>6. 뒷장의 작은사폭은 본을 뒤집어서 완성선을 그린다.</p>



7. 겹감의 안쪽에 본을 대고 그리게 되므로 사진과 같이 대칭으로 나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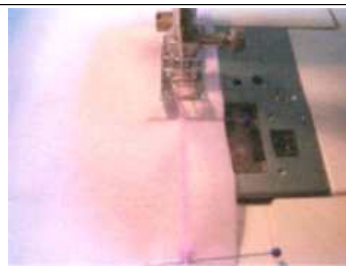
• 박음질

완성선을 그린 후 박음질을 한다. 한복은 박음질을 하고 반드시 다림질하는 과정을 거쳐야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좌우를 잇는 솔기는 시접을 큰 쪽으로 꺾는 점을 참고한다.

허리를 마름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23번 까지 진행하고 허리를 안으로 말아서 박음질 했다.



1. 큰사폭과 작은사폭의 솔기를 먼저 박음질한다. 사진과 같이 큰사폭의 안이 위로 오게 두고 뒤에 작은사폭의 겹이 오도록 배치한다. 반드시 큰사폭의 겹과 작은사폭의 겹을 맞대고 핀을 꽂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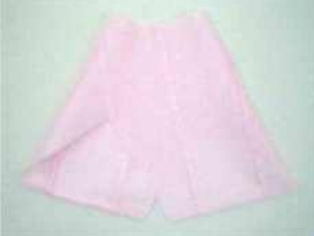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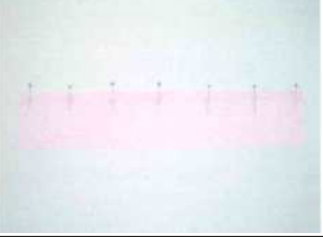




2. 사진과 같은 방향으로 옷감이 왼쪽으로 가도록 두고 시접에서 시작해서 시접 끝까지 박음질한다. 박음질할 때 작은사폭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박음질 한 후 시접을 1.5cm 남기고 자른다.

		
<p>4. 시접을 큰사폭 방향으로 접고 다림질 한다.</p>	<p>5.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펼치고 겉에서 한 번 다려준다. 솔기 방향이 사진과 같이 대칭으로 나와야 한다.</p>	<p>6. 마루폭에 핀을 꽂고 시접까지 박음질 한다. 앞의 사진 중 어느 쪽에 마루폭을 달아도 무방하다.</p>
		
<p>7. 시접을 1.5cm 남기고 마루폭 방향으로 다린다.</p>	<p>8. 마루폭을 펴고 겉에서 다려준다.</p>	<p>9. 반대쪽 큰사폭과 작은사폭 솔기 쪽에 마루폭을 달아준다.</p>
		
<p>10. 다른 하나의 큰사폭과 작은사폭의 겉을 맞대고 핀을 꽂는다.</p>	<p>11. 반대편 마루폭과 사폭 솔기도 끌어당겨 핀을 꽂고 박음질한다.</p>	<p>12. 시접은 1.5cm 남긴 후 정리하고, 마루폭 방향으로 다림질한다. 이때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이은 솔기가 앞뒤로 같은 방향으로 나와야 한다.</p>
		
<p>13. 겉으로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다림질한다.</p>	<p>17. 겉감을 옆으로 돌려 바짓부리에 핀을 꽂고 박음질한다. 이때 마루폭의 솔기를 맞추고 시접 끝까지 박아준다.</p>	<p>18. 시접은 안쪽을 방향으로 다림질한다.(겉감과 안감으로 이은 솔기는 대부분 겉감으로 넘기지만 바짓부리는 예외.)</p>

		
<p>13. 겉감으로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다림질한다.</p>	<p>17. 겉감을 옆으로 돌려 바짓부리에 핀을 꽂고 박음질한다. 이때 마루쪽의 솔기를 맞추고 시접 끝까지 박아준다.</p>	<p>18. 시접은 안쪽을 방향으로 다림질한다.(겉감과 안감으로 이은 솔기는 대부분 겉감으로 넘기지만 바짓부리는 예외.)</p>
		
<p>19. 큰사폭과 작은사폭의 솔기 네 겹의 핀을 꽂고 바짓부리의 겉과 안을 잘 맞추어 핀을 꽂아둔다.</p>	<p>20. 완성선을 다시 그린 후 네 겹의 배래에 핀을 꽂아준다.</p>	<p>21. 완성선을 따라 박음질을 하고 밑 부분에 다섯 개의 가위집을 준다. 양쪽 부리는 반드시 되돌아 박기를 한다.</p>
		
<p>22. 배래 시접을 겉감 쪽으로 접어 다린다.</p>	<p>23. 겉감으로 뒤집는다.</p>	<p>24. 허리의 완성선을 다시 그린 후 겉감과 안감 허리둘레의 마루쪽 솔기를 맞추고 핀을 꽂는다.</p>
		
<p>25. 겉감과 허리를 연결하는 박음질을 한다.</p>	<p>26. 허리의 겉감과 안감의 겉을 마주대고 시접을 1.5cm 두고 박음질한다.</p>	<p>27. 접을 안감 방향으로 접고 0.5cm 넓이로 눌러 박음질 한다.</p>

	
28. 허리둘레에 맞추어 접고 안감에 고무 밴드를 넣을 창구멍을 표시하고 핀을 꽂는다.	29. 창구멍의 양쪽은 되돌아 박기를 하고 박음질한다.

② 저고리

• 필요 치수

저고리 본뜨기에 필요한 치수는 가슴둘레, 확장, 저고리의 길이이다.

-가슴둘레: 겨드랑이점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돌려 잴다.

-확장: 뒷목점에서 어깨끝점을 지나 손목점까지 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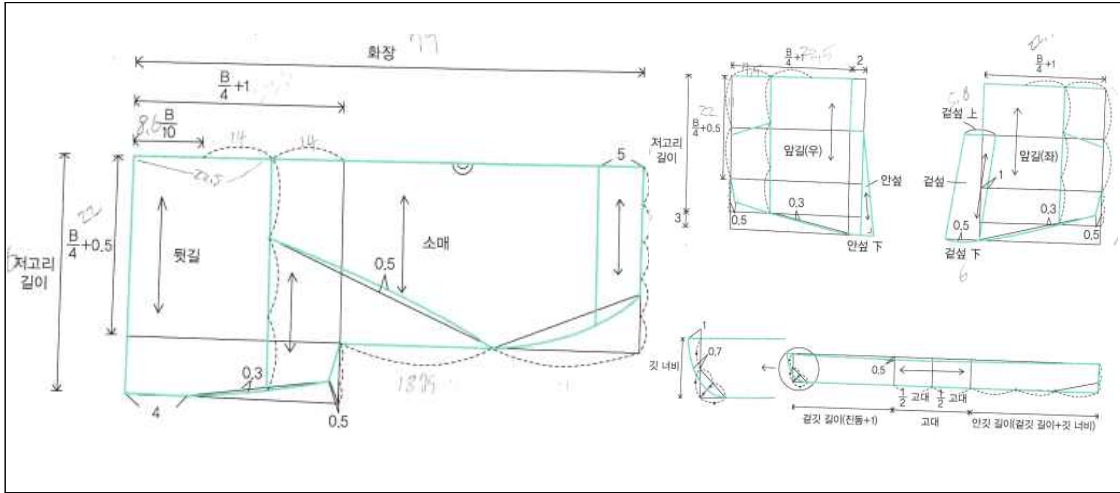
-저고리 길이: 뒷목뼈에서 내려 재어 저고리 길이를 정해준다.

• 참고 치수

항목	크기	소	중	대
가슴둘레 (B)		82	86	90
저고리 길이		25	26	27
확장		72	74	76
진동 (B/4+0.5)		21	22	23
고름/2 (B/10)		7.7	8.1	8.5
겉섵	윗너비(깃 너비+1)	5.5	5.8	6
	아랫너비(깃 너비+1.2)	5.7	6	6.2
안섵	윗너비	2	2.2	2.4
	윗너비(깃 너비-1.4)	3.1	3.4	3.6
깃 너비		4.5	4.8	5
겉깃 길이(B/4+0.5)+0.5		21.5	22.5	23.5
고름 너비		5	5.5	6
고름 길이	긴 고름	75	85	90
	짧은 고름	70	80	85

• 패턴 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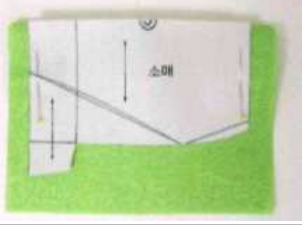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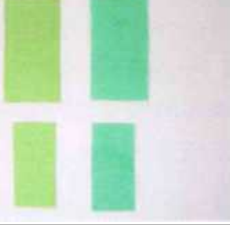
성인 여자는 가슴을 고려하여 아 처짐을 두고 제도한다. 또한 앞길 오른쪽의 안섵선을 2cm 밖으로 내어 저고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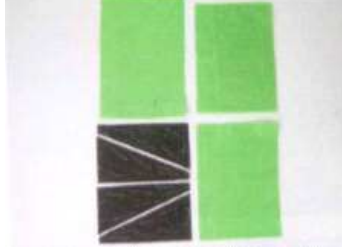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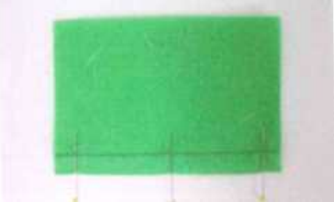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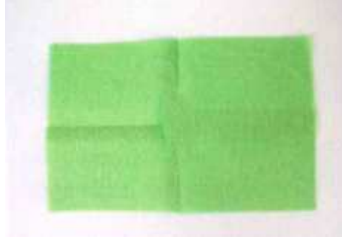


전에 설명 했듯이 1차 샘플링에서는 모든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 디자인에 없는 동정과 깃, 고름 패턴을 뜨지 않고 마름질 하지 않았다.



<p>1. 뒷길과 소매가 연결된 본에서 진동선을 자르지 않고 결마기선을 잘라낸다.</p>	<p>2. 겉감의 겹끼리 접고 식서와 평행하도록 뒷길 본을 올려놓는다. 등솔, 소매, 어깨, 도련에서 시점을 두고 뒷길 두 장을 마름질한다.</p>	<p>3. 겉감의 겹끼리 접고 앞길 오른쪽 본에서 섹션과 결마기선을 접고 올려놓는다. 어깨, 도련, 소매, 섹에 시점을 두고 앞길 두 장을 마름질한다.</p>

	
<p>4. 소매 본의 끝동을 접고 진동과 수구에 시접을 둔다. 배래의 곡선은 시접을 넉넉히 두고 반드시 직선으로 마름질한다. 중심이 되는 골선에 반드시 꼭지각을 준다.</p>	<p>5. 겹설편과 안설편에는 심감이 필요하므로 심감도 겹감과 같은 치수로 마름질하고 시침한다.</p> <p>겹설편 마름질 치수 길이=겹설편 길이+2cm(아래시접) 너비= 겹설편 아래 너비+4cm(양쪽 시접)</p> <p>안설편 마름질 치수 길이=안설편 길이+2cm(아래시접) 너비=안설편 아래 너비+4cm(양쪽 시접)</p>

• 박음질

깃과 고름을 마름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16번 까지 완성했다.

		
<p>1. 겹감과 동일하게 마름질한 김을 대고 이숫시침을 한다.</p>	<p>2. 겹감은 겹끼리 접고 등솔을 박음질한다.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다린다.</p>	<p>3. 어깨솔 시접은 뒷길과 앞길 겹을 접고 등솔을 기준으로 양쪽의 2/1 고대를 정확히 표시하고 되돌아 박기를 한다. 고대에 가위집을 준다.</p>
		
<p>4. 어깨솔은 뒤로 다림질한다.</p>	<p>5. 앞길 왼쪽에 겹설편을 달고 시접은 겹설편 쪽으로 다린다.</p>	<p>6. 앞길 오른쪽에 안설편의 올 방향을 어긋나게 달고 시접은 길 쪽으로 다린다.</p>

		
<p>7. 길에 소매를 달고 진동 시접은 가름솔로 다린다.</p>	<p>8. 안감의 겹끼리 등솔을 박음질하고 시접은 고대로 왼손으로 잡고 넘겨 다린다.</p>	<p>9. 소매 본을 대고 수구선을 그리고 박음질한다.</p>
		
<p>10. 뒷도련은 동아래 에서 밖으로 0.5cm 더 나아가 박음질한다.</p>	<p>11. 앞길 왼쪽은 본을 뒤집어서 놓고 동아래에서 밖으로 0.5cm 더 나아가 도련과 섹션을 그리고 박음질한다.</p>	<p>12. 앞길 오른쪽에서 본을 뒤집어서 놓고 동아래에서 밖으로 0.5cm 더 나아가 도련과 섹션을 그리고 박음질한다.</p>
		
<p>13. 직선 시접은 1.5cm, 곡선 시접은 1cm로 두고 시접을 정리한다. 동아래에서 밖으로 0.5cm 나가서 박은 점까지 가위집을 준다.</p>	<p>14. 시접 정리한 부분을 걸감 쪽으로 박음선 보다 0.2cm 넘겨 닐솔로 다림질한다.</p>	<p>15. 어깨와 진동에 핀을 꽂아 둔다. 소매 본을 대고 배래와 동아래를 그려준다.</p>

		
<p>16. 배래 시점은 1cm로 시접 정리를 하고 겹감 쪽으로 접어 다린다. 진동은 박음선 바로 앞까지 가위집을 준다.</p>	<p>17. 겹감의 고대 쪽으로 손을 넣어 뒤집고 재래의 솔기가 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다림질한다. 도련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눌러 다리고 스팀은 사용하지 않는다.</p>	<p>18. 깃을 달기 전에 저고리를 편평하게 놓고 겹감과 안감이 밀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어슷시침을 한다.</p>
		
<p>19. 둥근 깃을 만들어 놓는다(남자 저고리 참고).</p>	<p>20. 겹감을 고대점을 길의 고대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깃머리 위치를 정한다. 깃을 편안하게 놓이도록 겹감, 고대, 안깃 순으로 핀 시침한다. 안깃 시점은 반드시 1.5cm 남겨놓는다.</p>	<p>21. 깃을 달아준다.</p>
		
<p>22. 고름과 동정을 달아준다. 고름의 너비와 길이는 유행과 디자인에 따라 변화를 주기도 한다.</p>		

- 전통한복 패턴 1차 샘플링 완성

이렇게나 간단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정말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한복 용어를 외우고 공부하고, 치수를 재서 패턴떠서 마름질하는 방법을 익히고, 외계어 같은 박음질 방법 양식을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까지도 벅했는데, 경험이 없으니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 실수는 만발했다.

패턴은 물론, 마름질 에서도 계속해서 수정이 필요했고, 박음질하는 과정에서는 천을 뜯어서 몇 번이고 “다시”를 반복해야 했다.

난생 처음 이 과정을 거의 혼자 해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 고민이 있었기에 디자인을 도식화하고 패턴을 떠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어느정도 감이 잡혔다.

(2) 디자인 패턴 샘플링

디자인 패턴 샘플링 과정과 방법은 전통한복 패턴 샘플링과 동일해서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세한 사진 설명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 샘플링의 과정과 방법이 궁금하다면 전통한복 패턴 샘플링을 참고해야 한다.

① 2차 샘플링

디자인을 제작으로 옮기기 위한 2차 샘플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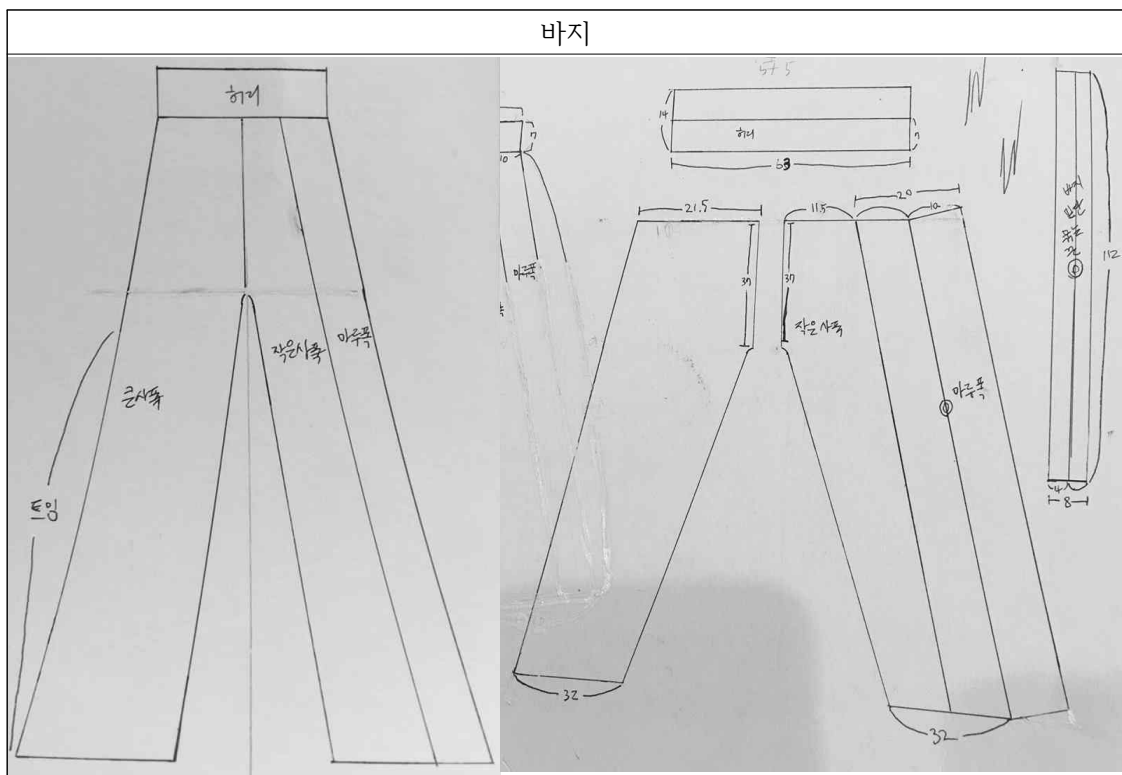
- 도식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식화를 구상해 내야한다.

바지: 왼쪽 옆면에 깔끔하게 트임을 주기 위해서 골선 재단된 왼쪽 마루폭을 없애고 큰사폭을 넓혀서 대체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작은사폭 구성 까지 변경해야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많은 고민 끝에 서양 바지 패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 가운데를 큰사폭과 작은 사폭이 맞닿게끔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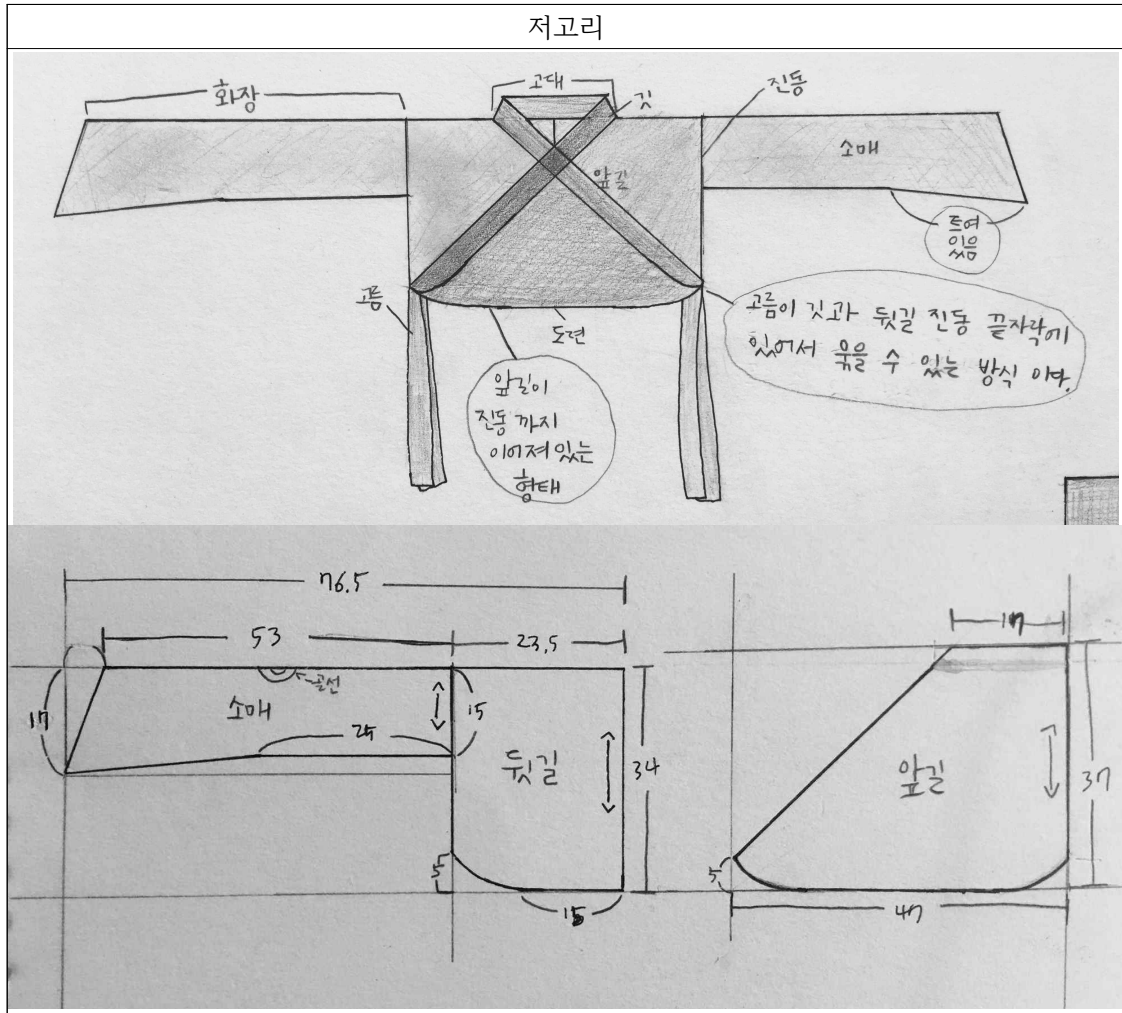
허리단을 만들어서 고무줄을 넣을 수 있게 구성했다.



저고리: 셔를 없었기 때문에 양쪽 앞길이 동일한 모양으로 진동까지 이어져서 깃도 마찬가지로 진동까지 이어져 있다.

고름은 깃과 앞길과 뒷길 사이 진동에 있어서 묶을 수 있는 형태이다.

파고다 소매를 연출하기 위해서 소매를 팔꿈치부터 손목에 이르기 까지 너울거리게 하고 트여주었다.



• 2차 샘플링 제작 과정

바지: 원래는 큰사폭과 마루폭을 이어서 박음질 했어야 했지만 왼쪽 마루폭을 큰사폭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큰사폭과 큰사폭을 이어서 박음질 했고, 트임을 줘야하는 것을 계산해서 트임 부분은 말아 접어 박음질 했다.

저고리: 바지와 동일하게 소매에도 트임을 줘야 하는 것을 계산해서 트임 부분만 말아 접어 박음질 했다.

- 2차 샘플링 완성



바지: 꽤나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지만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있었다.

타이트한 핏을 위해 허리부터 골반 까지 품을 좁게 만들고 허리에 고무줄을 넣었는데 바지를 입었을 때 고무줄 주름이 거의 퍼져서 예쁜 핏으로 연출 되지 않았다.

허리 부터 골반까지의 품에 비해서 골반부터 밑단 까지의 품이 비교적 넓어 어색한 감이 있었다.

그렇지만 샘플링을 다시 해야하는 수준은 아니었기 제작 할 때 이 점을 참고해서 제작 해야 한다.

저고리: 깃과 고름을 제외하고 완성된 2차 샘플링 저고리를 입어보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다.

고름을 달아 묶었을 때 앞길과 진동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안된다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가슴 때문에 앞길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앞길을 뒷길보다 3센치 길게 했는데 완전 잘못 만든 옷처럼 이상한 언발란스가 연출되지 않는가 하면, 파고다 소매를 만들기 위해 팔꿈치부터 팔목에 이르기까지의 폭을 넓혔는데 겨드랑이는 딱 맞아 불편하고

팔뚝은 너무 남았다.

내가 상상했던 핏은 저고리를 입었을 때 앞길과 뒷길의 길이가 동일하고, 소매가 전체적으로 타이트하지만 트여놓은 부분만 여유있게 널널한 파고다 소매를 상상했다. 하지만 결과를 전혀 달랐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볼 것도 없이 3차 샘플링으로 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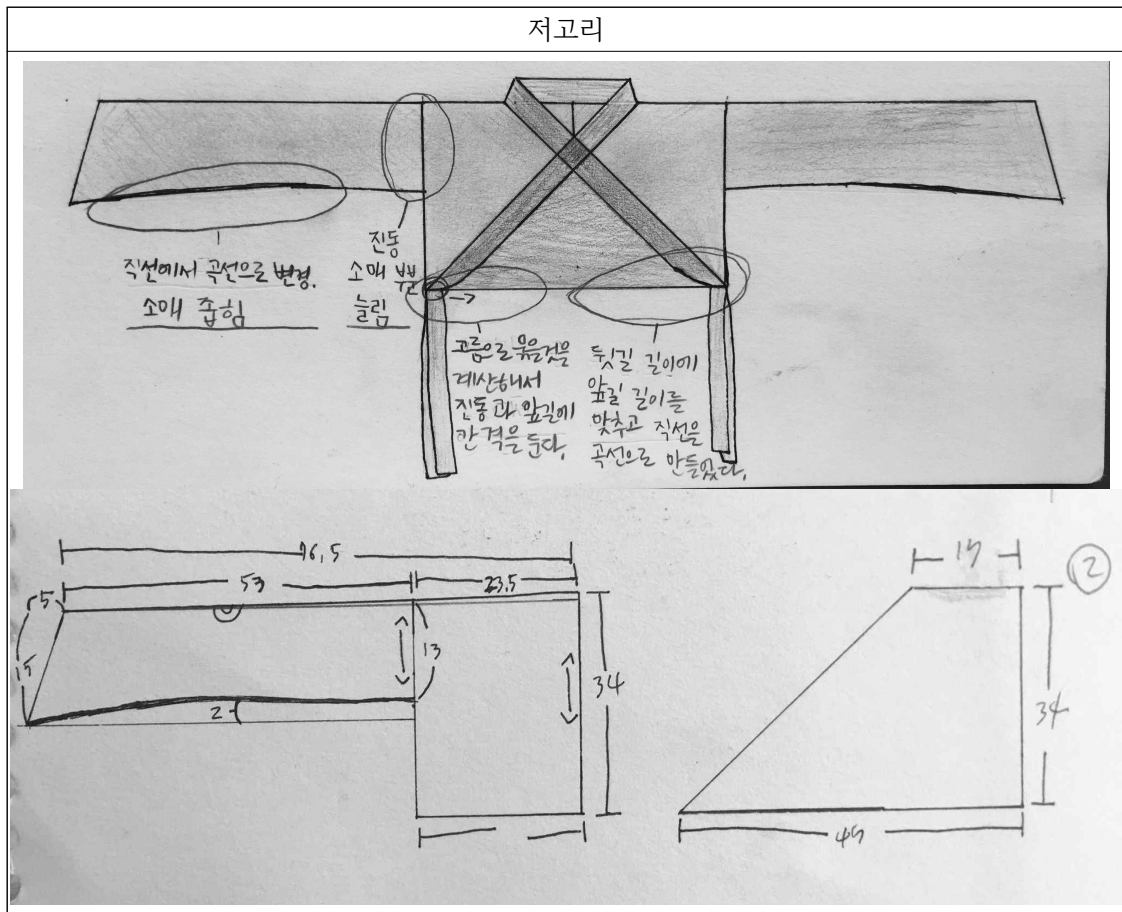
② 3차 샘플링

3차 샘플링에서는 2차 샘플링에서 실패한 부분을 수정했다.

고름을 묶을 것을 계산해서 진동과 앞길에 간격을 두었고, 뒷길 길이에 앞길 길이를 맞췄다. 내 디자인에는 도련이 곡선인 것보다 직선인 것이 예뻐서 도련을 직선으로 바꿨다.

겨드랑이 폭을 넓히고 팔뚝의 폭은 좁히기 위해서 소매 배래의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서 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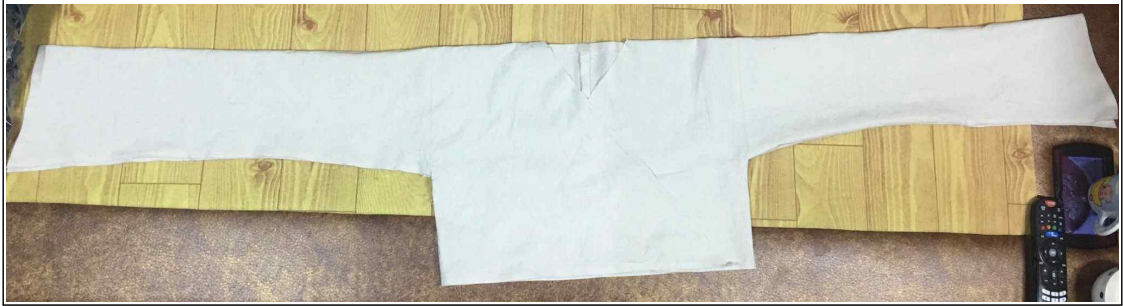
• 도식화



- 3차 샘플링 제작 과정

2차 샘플링 제작 과정과 동일하다.

- 3차 샘플링 완성



저고리: 깃과 고름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어보았을 때 진동과 앞길에 간격을 두고 뒷길과 앞길의 길이를 맞추어 도련 곡선을 직선으로 바꿔준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렇지만 소매를 많은 고민 끝에 수정 했음에도 작품으로 도저히 제작 수 없었다.

겨드랑이 부분은 조금 편안해졌지만 팔뚝의 폭은 너무 남아서 파고다 소매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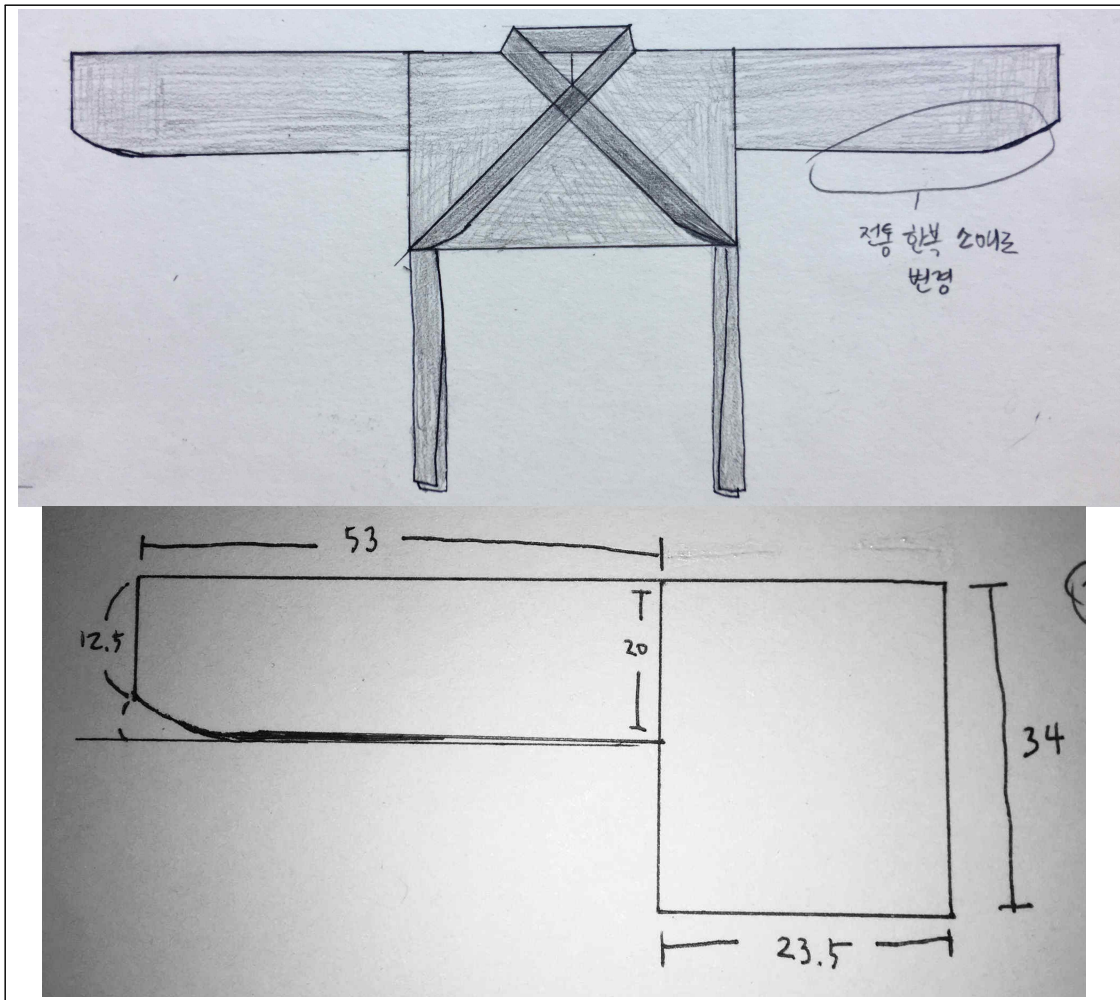
한복의 패턴과 소재로는 연출 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한계가 있고, 내가 단기간에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③ 4차 샘플링

파고다 소매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던 1차 샘플의 전통한복 소매 패턴으로 수정했다.

소매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3차 샘플의 소매만 뜯어서 사용했다.

• 도식화



• 4차 샘플링 제작 과정

3차 패턴 샘플링 과정과 동일하되, 도식화 내용처럼 소매는 1차 샘플의 방식을 사용했다.

- 4차 샘플링 최종 완성



완성하고 입어보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최종 샘플에 이르기까지 4번의 도식화, 6개의 샘플링을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하고 다시 해야 했던 것들이 전부 보완된 최종 샘플이 탄생했다.

디자인 패턴 샘플링에는 결과론 적인 핵심 요소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두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실패한 샘플링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샘플링을 완성 할 수 있었다. 4차 샘플로 작품 제작을 진행하는것에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작품 제작 단계로 넘어갔다.

7.) 작품 제작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선 원단을 구매해야 했다. 동대문에서 몇십개의 스와치를 떼와서 작품에 사용하고 싶은 원단 스와치만 몇가지 골라놓았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동대문에서 원단을 주문하는 것은 불가능 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주로 원단을 구매하는 규모가 큰 원단 가게에 골라놓은 스와치를 갖고 가서 최대한 비슷한 원단으로 구매했다.

저고리 원단은 전통 한복 원단인 노방을 사용했고, 바지는 정확한 명칭 없지만 면 종류를 사용했다.

이전 샘플들에는 오버로크로 천의 가장자리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는데 작품에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오버로크 처리를 해주었고 더 섬세한 작업을 했다.

(1)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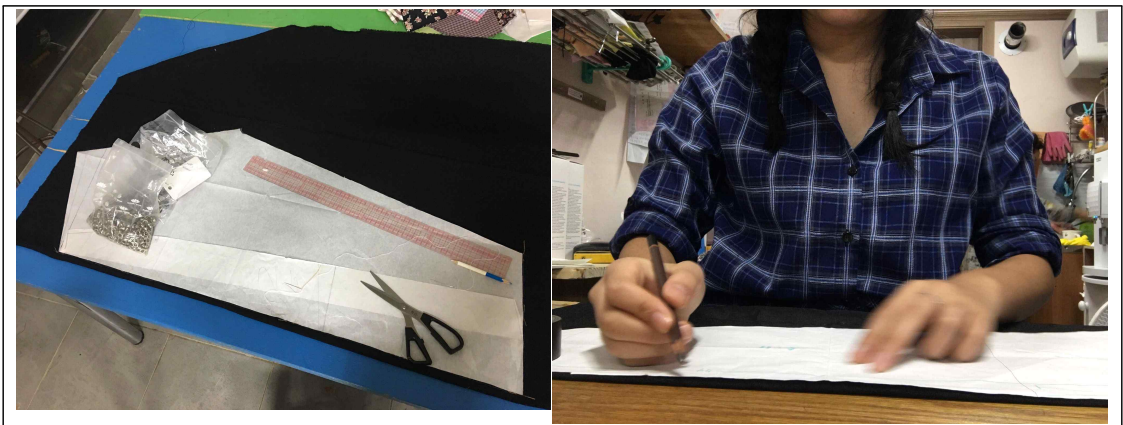
① 바지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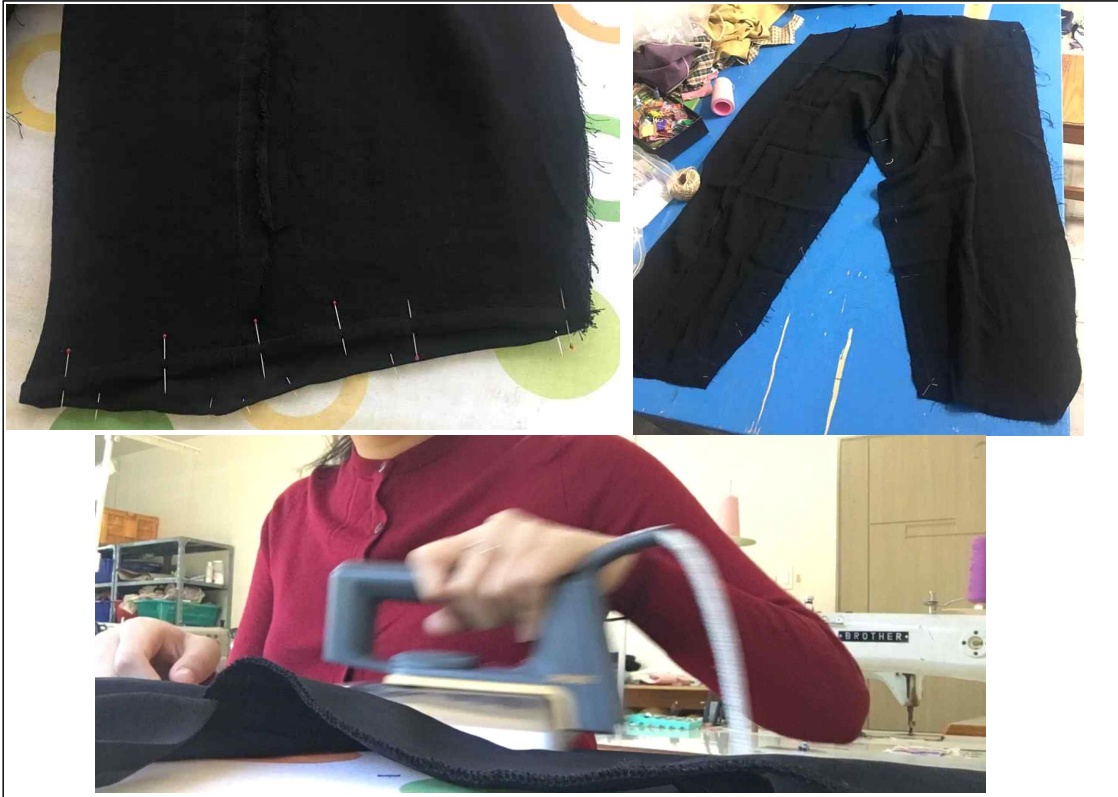
2차 샘플링에서 실패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큰사폭, 작은사폭의 허리, 골반 양쪽에 5cm씩 폭을 넓혀서 불필요한 도식화 과정을 건너뛰고 패턴을 수정했다.



바지 원단이 세탁 후에 줄어들 수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원단 세탁을 먼저 해서 손질했다.



그 이후, 최종 샘플 방법과 동일하게 마름질해서 발목 끈 까지도 마름질했다.



마름질한 천을 방법과 양식에 맞게 오버로크 처리를 해주고, 박음질, 다림질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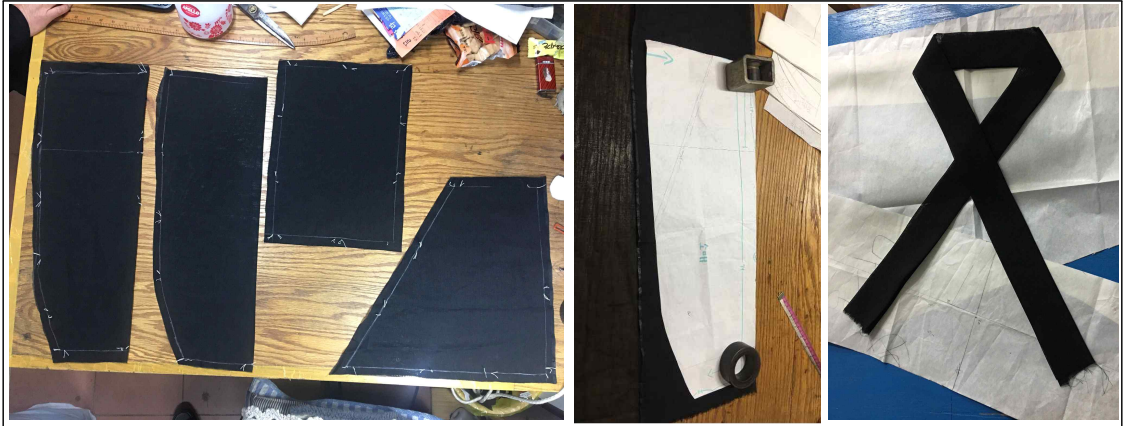
② 바지 완성

세세한 부분 까지 신경써서 섬세하게 작업하고 싶었지만, 시간에 쫓기듯 완성해서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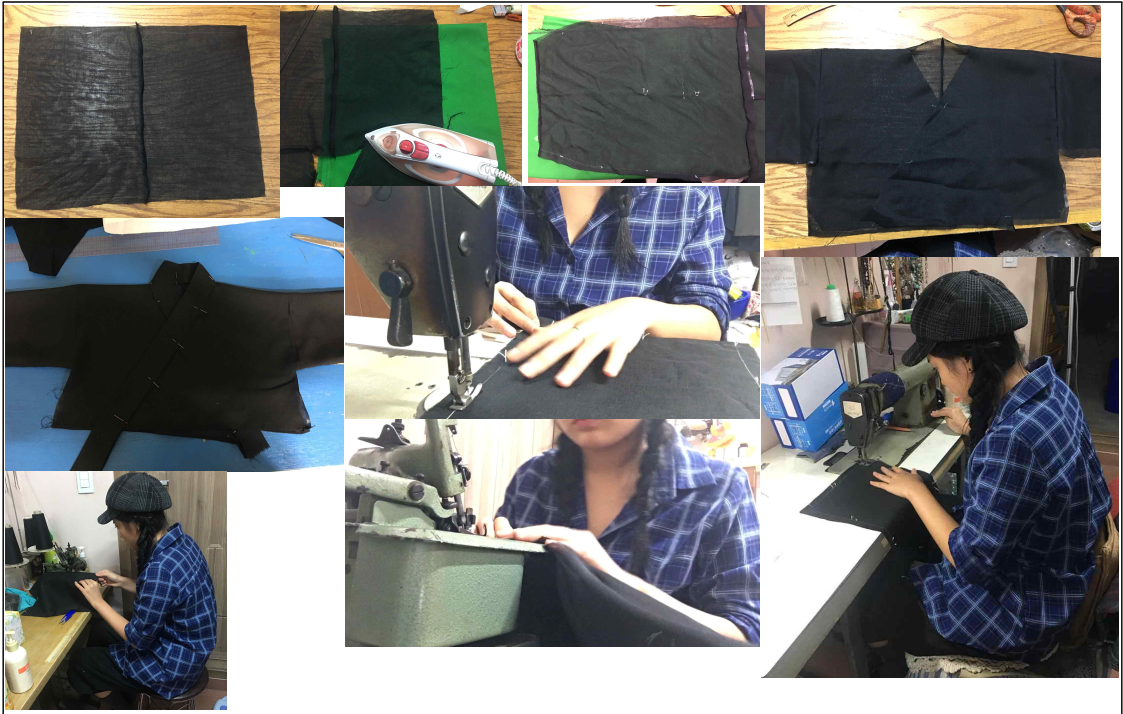
그렇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한다.

(3) 저고리

① 저고리 제작 과정



4차 샘플링 패턴으로 마름질 한다.



마름질한 옷감을 방법과 양식에 맞춰서 다림질하고 박음질 하는 과정을 거쳤다.

③ 저고리 완성

저고리 작업을 바지 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2) 액세서리

완성한 바지, 저고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액세서리의 종류와 개수를 구상하기 위해, 한복 액세서리 종류에 대한 자료³⁰⁾³¹⁾를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다른 색깔 없이 검은색으로 디자인한 저고리, 바지는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컬러의 액세서리로 보완해야 했다.

한복은 목선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서 목걸이는 되도록 삼가야 했기 때문에, 귀걸이로 목선과 저고리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허전해 보일 수 있는 가슴 밑 부분과 허리에 대표적인 한복의 장신구, 노리개³²⁾를 구성하고, 한복에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 되는 허리띠(벨트)를 구성해서 바지 저고리와 귀걸이, 노리개, 허리띠를 세트로 구성했다.

조선시대 장신구에 사용되기도 했던 진주를 주로 사용하고 체인과 큐빅으로 기존 한복 장신구와는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바지, 저고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었다.

③ 참고자료 수집

디자인 구상 및 스케치를 하기 전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30) 한복 장신구의 종류 : 네이버 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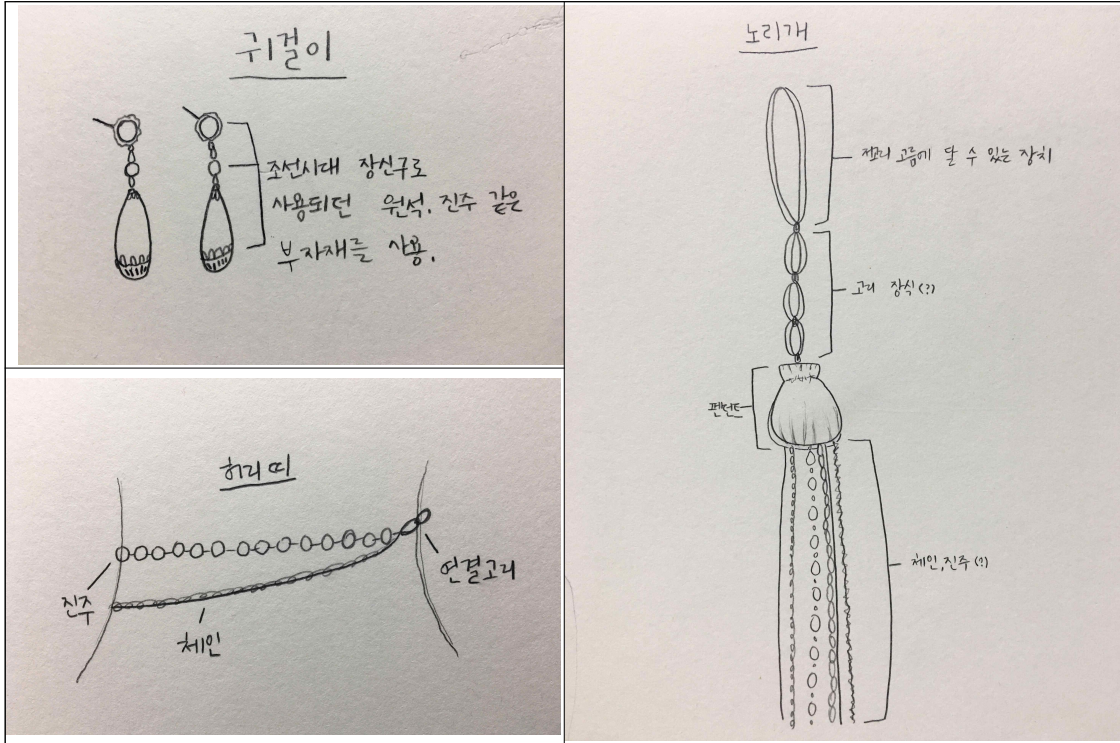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445225&memberNo>)

31) 글림자. (2018). 조선시대 우리옷 한복 이야기. (초판). 파주시 :헤지원

32) 여자들이 몸치장으로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 따위에 다는 물건.

④ 디자인 구상 및 스케치

스케치한 부자재가 동대문 액세서리 부자재 시장에 있을 것 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디자인 구상 및 스케치는 생략했다.



⑤ 액세서리 제작

동대문 액세서리 부자재 시장에 가서 구상했던 부속품을 찾기 위해 많이 둘러봐야 했다. 내가 찾던 부자재가 없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부자재를 다시 찾아서 구상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

• 귀걸이



• 노리개

<p>9개의 부자재를 준비한다. 캡³⁴과 체인을 몇 종류 더 준비했지만, 1번 캡과 2, 3번 체인을 사용했다.</p>	<p>오링으로 부자재를 연결한다.</p>	<p>2, 3번 체인을 같은 길이로 자른다. (2번 체인을 자른 사진을 찍지 못했다.)</p>
<p>자른 체인을 같은 간격으로 캡에 넣고 달아서 고정해준다.</p>	<p>체인이 고정된 캡과 부자재를 오링으로 연결해주면 완성된다.</p>	

33) 부자재를 연결하기 위한 작은 원형의 고리이다.

34) 여러개의 체인을 하나로 고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 허리띠

<p>10개의 부자재를 준비한다. 3번째 사진에는 두 종류의 체인을 준비했지만 큐빅이 달린 체인을 사용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체인은 분리 되어있던 큰 오링을 연결한 것이다.)</p>	<p>1번 체인을 캡³⁵에 넣어 진주 체인과 함께 오링을 연결해서 키링³⁶과 연결했다.</p>	<p>두개의 체인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오링에 연결한 후, 키링에 연결하기 위한 짧은 체인에 연결한다.</p>
<p>부자재에 진주 고리를 연결하고, 큐빅 체인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오링으로 연결했다.</p>	<p>오링으로 키링과 부자재를 연결해주면 완성된다.</p>	

35) 구멍이 없는 체인을 고리가 있는 캡으로 고정해서 오링을 연결 하기 위해 사용했다.

• 작업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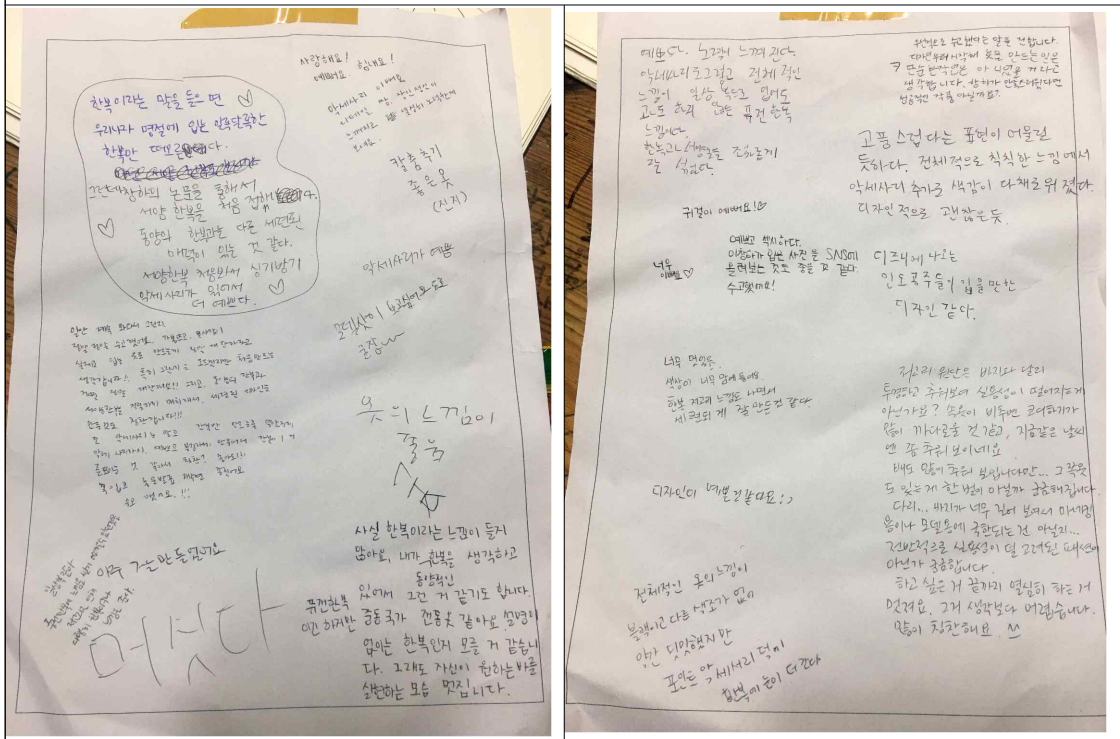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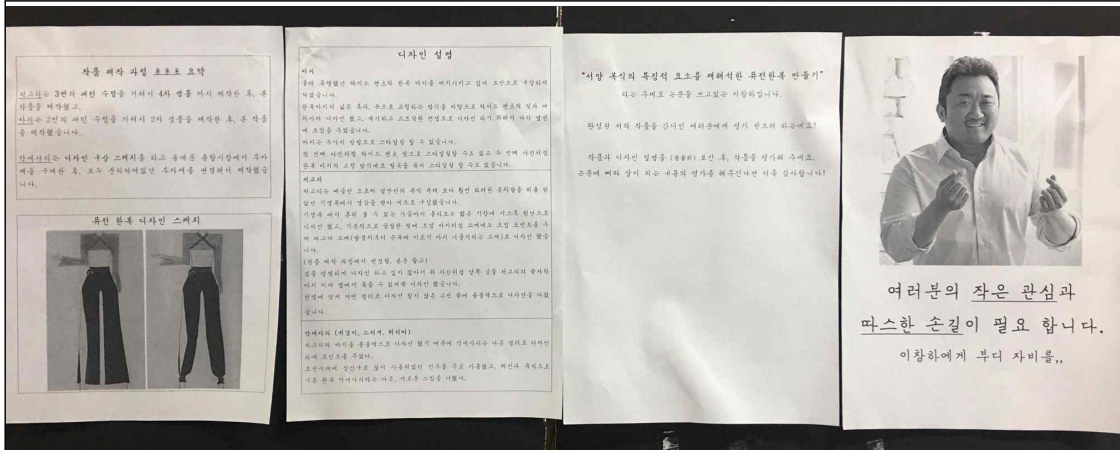


36) 열쇠고리 같은 고리가 달린 부속품을 말한다.

7. 평가

1.) 간단인 평가

완성된 작품을 마네킹에 입혀서 평가를 받기위한 설명과 평가를 배치했다.



-한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 명절에 입는 알록달록한 한복만 떠오른다.

그런데 창하의 논문을 통해서 서양 한복을 처음 접했다.

동양의 한복과는 다른 세련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서양한복 처음봐서 신기방기, 악세사리가 있어서 더 예쁘다.

-일단 계속 봐와서 그런지, 정말 정말 수고했어요.

가뵃고, 사람이 실제로 입는 옷을 만드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드는 거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동양의 한복과, 서양한복을 적절하게 매치해서 세련된 디자인을 만든것도 칭찬합니다!!!
또, 악세사리는 말고 한복만 만드는데 알았는데 악세사리 까지 예쁘고 블링하게 만들어서 한복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서 칭찬? 좋아요!
꼭 입고 논문 발표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예뻐요! 힘내요!

-악세사리 예뻐요 디테일이 짱.
장인 정신이 느껴지고 열심히 노력한게 보여요.

-일상복 같아 퓨전한복에 느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었던 것을 저고리로 인해 다행히 한복이구나 하는 느낌을 준다.

-사실 한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동양적인 한복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퓨전한복 이긴 하지만 중동국가 전통옷 같아요.
설명이 없이는 한복인지 모를거 같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모델샷이 보고싶어요

-예쁘다. 노력이 느껴진다.
악세서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느낌이 일상복으로 입어도 과도하지 않은 퓨전한복 느낌이다.
한복과 서양옷을 조화롭게 잘 섞었다.

-우선적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 옷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작업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하가 만족스러웠다면 성공적인 작품 아닐까요?

-고풍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 하다.

전체적으로 칙칙한 느낌에서 악세사리 추가로 색감이 다채로워졌다.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듯.

-예쁘고 섹시하다.

이창하가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려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수고했어요!

-디즈니에 나오는 인도공주들이 입을만한 디자인 같다.

-너무 멋있음.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복 저고리 느낌도 나면서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같다.

-저고리 원단은 바지와 달리 투명하고 추워보여 실용성이 떨어지는게 아닌가요?

속옷이 비추면 코디하기가 많이 까다로울 것 같고, 지금같은 날씨엔 좀 추워보이네요.

배도 많이 추워보입니다만... 그쪽 옷도 있는게 한 벌이 아닐까 궁금해집니다.

다리... 바지가 너무 길어보여서 마네킹용이나 모델용에 국한되는 건 아닐지...

전반적으로 실용성이 덜 고려된 패션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하고싶은 거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 멋져요.

그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이 칭찬해요^^

-전체적인 옷의 느낌이 블랙이고 다른 색조가 없어 약간 밋밋했지만 포인트 악세서리 덕에 한복에 눈이 더 간다.

2.) 전문가 평가

(1) 시옷프로젝트 대표 겸 디자이너 씨네

(2) 차이킴 대표 겸 디자이너 김영진

(3) 생활한복 패션 유튜버 루이즈

II. 결론

1. 자기 평가

간디인의 전반적인 평가 내용은, 동 서양 복식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내 디자인을 공감해 주고 칭찬해주는 내용과, 액세서리가 예쁘다며 한복과 다채롭게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해준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고마웠지만, 예상했던 대로 전통한복의 요소가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실용성이 덜 고려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내가 입을 옷이라서 실용성 보다는 디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예상했다.

이 논문을 처음 계획할 때 목표로 했던 것들을 전부 이뤄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잊지 않고 보다 더 잘 이용하기 위해서 서양 복식을 통해 디자인한 한복을 만들었고, 이제 직접 입고 다니며 한복은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을 보여줄 일만 남았다.

또한, 옷 한 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한복에 대해 공부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사실 목표로 했던 것들보다 훨씬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결과는 작품이 아니다.

물론 작품도 만족스러운 결과이지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 4번의 도식화, 7번의 패턴, 6개의 샘플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작품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애정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혼자 여기 저기 물어보고 찾아보면서 처음부터 공부해야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한복 한 벌을 완성하기 까지의 과정을 외우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 노력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때 마다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했지만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을뿐더러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성공의 어머니는 실패라는 말을 몇 번이고 공감한다.

많은 실패와 수정, 보완을 반복해서 결국은 성공 했다. 그 과정의 결과물이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2. 연구의 한계

3. 논문을 마치며

고마운 사람들

참고 자료

고민한 흔적

일지